

# Style 1 조선일보

OCTOBER 2023  
vol. 259

*Cartier*



Plaid cashmere blanket, woven and dyed by hand.





# DIOR

LA D MY DIOR  
YELLOW GOLD WITH "CANNAGE" PATTERN AND DIAMO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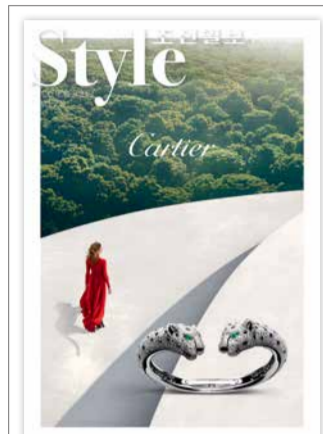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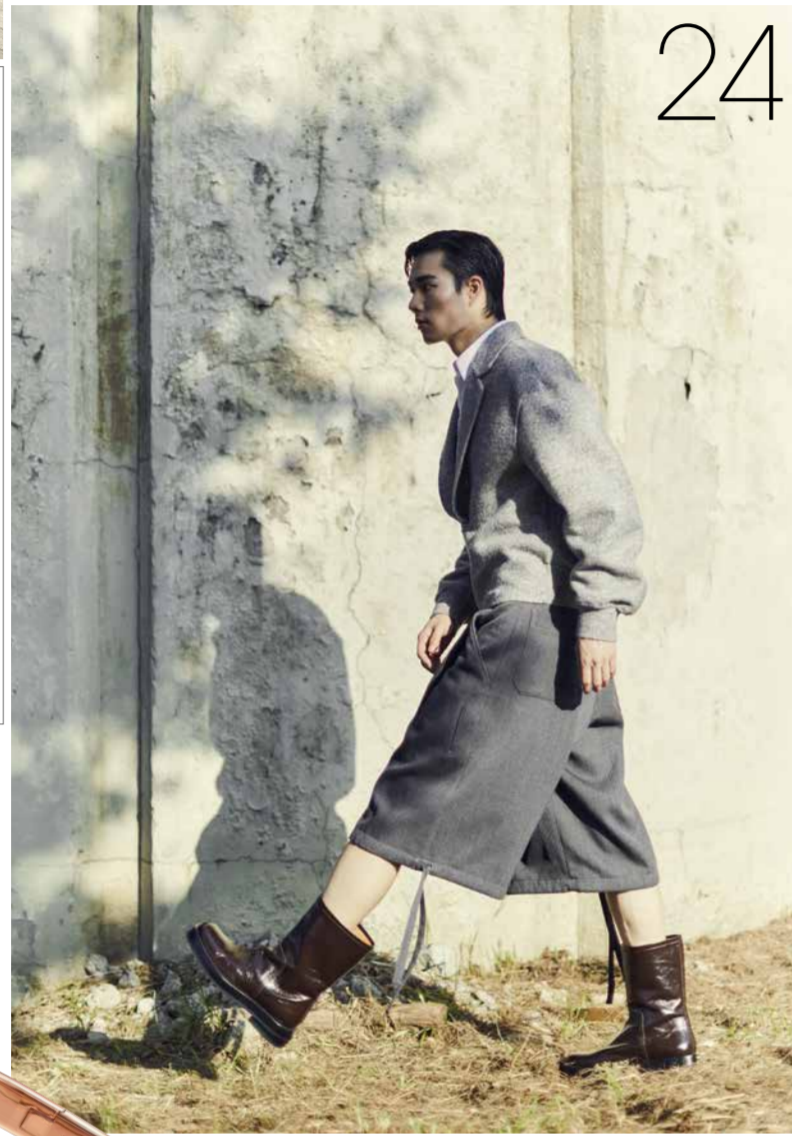
16

19

24



판더 드 까르띠에 1914년 탄생한 판더 드 까르띠에는 아프리카 여행 중 악티를 찾아 헤메는 판더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 까르띠에가 이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만들면서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 아생적이 미지의 판더는 까르띠에를 만나 카리스마는 유지한 채 사랑스럽거나 때로는 장난스러운 팔색조 같은 매력을 더해 강렬한 궁정 에너지를 발산한다. 문의 1566-7277



- 13 **FLY HIGH** 남자들의 로망이자 럭셔리 스포츠 워치의 대표 디자인으로 손꼽히는 파일럿 워치.
- 16 **자연과 예술에 조응하는 건축의 미학** 도시 축제를 방불케 하는 큰 행사가 전개되는 '이벤트 주간'에 그 시기의 주인공 그룹에 속하는 누군가를 만나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건 자칫하게 아무진 꿈일지도 모른다. 그런 운이 닿은 대상이 옮기들에게는 아마도 서울에서의 일정이 가장 짧았을 건축가 구마 겐고(Kengo Kuma)였다.
- 17 **시대를 대변하는 옷의 역할** 눈을 꼭 감은 채 윗나가 흰히 보이도록 입을 활짝 벌리면서 웃어짓는데, 원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중년의 남성,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차이나 아방가르드' 세대의 한 축을 이끈 현대미술가 웨민준(Yue Minjun, 1962~)을 상징하는 캐릭터다.
- 18 **Behind the Scenes '휴먼 코미디의 무대'** 데이비드 샬레(David Salle, 1952~)만큼 다양하게 해석되는 작가가 있을까. 최선적을 선보이는 개인전 <World People>을 위해 리만머린 서울을 찾은 작가와 만났다.
- 19 **도시의 문화 예술을 대하는 그들만의 방식** 한동안 주로 해외에서만 접하다가 초가를 서울에서 다시 만난 프라다의 작은 축제. 짙지만 강렬하게 복합 문화 공간의 진수를 보여준 프라다 모드 서울(Prada Mode Seoul)을 반기운 마음으로 찾았다.
- 20 **THE GREATEST ICON** 강렬하고 인상적이며 가장 아이코닉한 동물이 된 까르띠에 팬다. 그 역사적인 사자와 거듭된 발전, 그리고 현재에 이르렀는지 대장정의 스토리를 돌아본다.
- 24 **THE LONGING** 더욱 깊어가는 그 남자의 가을. 2023 F/W 남성복 뉴욕.
- 32 **DREAM FIELD** 유럽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골프 대회이자 매년 같은 코스에서 개최해 더욱 특별한 오메가 마스터스 현장 하이라이트.
- 34 **HARMONIOUS JOURNEY** 한국 공예 후원 사업에 헌신하는 재단법인 예술이 율해에도 사설과 예술 사설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장인과 젊은 공예인을 선정하고 그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사설의 기업 철학인 장인 정신에서 비롯된 남다른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기리고 기술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재단법인 예술의 협력으로 빛은 또 하나의 여정.
- 36 **ABOUT AUTUMN** 가을의 서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색상, 영한 감성을 부여하는 감각적인 프린팅까지. F/W 맨 아우터 컬렉션.
- 37 **SNEAKERS ON** 어디서든 편안한 것은 물론 쿨하고 스타일리시한 감성까지 챙길 수 있는 남성 스니커즈.
- 38 **FOR LEGENDARY SKIN** 시세이도가 탄생시킨 차원이 다른 럭셔리 하이엔드 스킨케어,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컬렉션으로 피부 그 이상의 정점을 찍다.
- 40 **HIS OBSESSION** 담백하면서도 섬세하며, 강인하고 짙은 숨결이 느껴지는 가을 남자들의 향수.
- 41 **PERFECT MEN** 관리하는 남자가 더 매력적인 시대.
- 42 **EDITOR'S PICK**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지금, 화장대를 재정비할 때. 엄선한 이들의 뷰티템을 소개한다.



10

# Style 조선일보 Issue.259 October 202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 상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마케팅 | 박명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산비 분해재판 | 리온 인쇄 | 티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빙간로 413 현대 하이패션은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http://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BULGARI.COM

# BVLGARI ROMA

DIVAS' DREAM



for him  
**Selection**

더욱 과감해진 컬러, 유니크한 소재, 화려한 프린팅까지.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은 올해의 F/W 맨 뉴스타일. photographed by kim sa yun

프레임과 렌즈 컬러의 대비가 멋진 바이오 아메리트 소재의 선글라스 19만3천원 레오텐 by 에실로룩스타.

화이트 세무핀과 16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가 포인트인 화이트 골드 소재의 파트로 다블 화이트 라지 팬던트 99만원대 부세론.

불륨감 있는 세이프가 영한 감성을 전하는 송이카죽 소재의 LV 스카이트 스니커즈 4백80만원대 루이비통.

총 0.07캐럿의 캐비닛형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골드 소재의 25mm 에르메스 링 59만원대 에르메스.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프린팅이 특징인 캐시미어와 실크 소재의 벨카리브 65cm 스카프 61만원 에르메스.

시크한 멋을 선사하는 스텐다의 화이트 소재의 송이카죽 소재의 앵클부츠 2백만원대 켈리.

그려진 컬러감이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나일론 소재의 볼보는 2백59만 원대 파타고니아.

실용과 스타일의 조화를 이루는 블랙, 13X19X3cm, 1백만 원대 알버니.

하프 다이아몬드 핑거링 밴드를 세팅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티파니 T1 화이트 하프 다이아몬드 핑거링 밴드 가격 미정 티파니.

직경 40mm 케이스를 장착한 타타늄 소재의 인제니어 오토매틱 40 1천5백92만 원대 IWC.

에르메스 02-3446-1969 에실로룩스타 02-501-4436 루이비통 02-3432-1854 부세론 02-3467-8334 소메 02-3442-3359 에르메스 02-542-6622 에그제큐티브스 080-822-1533 켈리 02-544-1925 파타고니아 02-3430-7854 알버니 02-2018-1439 티파니 02-6250-8620 IWC 1877-4315 디젤 02-797-8770 발렌티노 가바리니 02-2015-4655

송이카죽 소재의 리스타드 클러치, 28X20X10cm, 2백92만 원대 발렌티노 가바리니.

강한 인상을 남기는 알버니의 패턴, 42X32X30cm, 2백만 원대 켈리.

캐시미어와 송이카죽 소재의 스카프 백, 42X32X30cm, 2백만 원대 켈리.



**DEFINING CLASS**  
since 1886



Instagram.com/MercedesBenzkr Facebook.com/MercedesBenzKorea Youtube.com/MercedesBenzKorea\_Official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홈페이지 : www.mercedes-benz.co.kr 카카오톡 채널 추가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 차량은 컨셉카이며, 생산 중이거나 판매하는 차량이 아닙니다.



편안한 느낌을 선사하는 레더 소재의 탈착 가능한 프린지 장식 레더 슬리브리스 2WAY 8천원 쿠에.

따뜻한 무드를 보여주는 아메리칸 투로 재현 스텐레스 스틸로 디자인한 마티유 by 에스티로스코퍼.

리처드 엠만 소시족이 반듯한 무드를 더해주며 미니, 유행 장식이 고급스러움을 선사하는 트라티 볼타백, 27x16x6cm, 41만8천원 조이그라이스.

유한 시를 부여하는 트라티베 스텐레스 스틸로 디자인한 볼트 가터 미팅 로지아네.

스타일러스 엠베링 에디터 용자정

루바와 다이아몬드를 피베 세팅한 핑크 골드 소재의 샹송 인피니아워링 7백20만원 프레드.

정반반을 사랑하는 핑크 컬러의 인피니아워링으로.

다채로운 스톤으로 장난감 대문짝만한 볼륨감과 화려함이 특징인 알라디과 워치 5천5백원 프레드.

시원함과 볼륨감 있는 디자인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소재의 12개 반반은 7천원.

# for her Selection

휘날리는 프린지, 예술품같이 정교하게 세팅한 비즈, 은은한 스팅글로 완성하는 가을 글램 룩. photographed by kim sa yun



우아한 느낌을 선사하는 크리스피 시폰 실크 소재의 쿠튀르 지수 루우 웨이스트 스커트 가격 미정 브루넬로 쿠치넬리.



7cm 10cm의 비즈로 장식한 레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소재의 12개 반반은 7천원.

스틸을 선택한 에스티로스코퍼의 마티유 by 에스티로스코퍼 가터 미팅 로지아네.



작은 사이즈로 어떤 핏에도 세련된 보헤미안 스타일. 핑크 골드 소재의 12개 반반은 7천원.

아이코닉한 프린트와 소재가 화려한 매력을 전하는 스몰 블랙 가터 미팅 사벨.



# Fly High

남자들의 로망이자 럭셔리 스포츠 워치의 대표 디자인으로 손꼽히는 파일럿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리틀링 나비타이머 B01 크로노그래프 43 항공기 기종과 애호가들에게서 사랑받는 정량적인 항공 워치로 지난해 70주년 맞이해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선보였다. 스틸 케이스에 하늘을 상징하는 스카이 블루 다이얼과 블랙 컬러를 조화롭게 매치한 것이 특징이며, 무려 70건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자사 제작 칼바네어로 구동된다. 1천2백50만원, 문의 02-792-4371

브리제 타임 XX 크로노그래프 2067 최고급 인공 다이얼의 항공 워치로 42mm 스틸 케이스에 블랙 다이얼을 매치하고 해바라기 컬러의 카운터 스틸로 스포티함을 더했다. 서로 다른 사이즈로 제작한 토르도이는 전체 다이얼에 더욱 역동적인 매력을 더하며 동시에 기록성을 높인다. 브레게에서 새로 개발된 셉트 워터proof 칼바네어로 구동된다. 2천5백72만원, 문의 www.breguet.com

제스 파일럿 빅데이트 플래티넘 워치 워치의 핵심 기능인 플래티넘 기능을 갖춘 오로베리 열 프라메로 칼럼 힐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했으며 중앙에 파워 및 미닛 핸즈, 9시 방향에 스몰 시컨즈, 6시 방향에 즉각적인 빅데이트를 매치한 한눈에 시간 등 모든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마이크로 플래티넘 처리한 블랙 세라믹 소재의 42.5mm 사이즈 케이스에 카기 스트랩을 매치해 항공 워치의 감성을 뽐냈다. 2천89만원, 문의 02-3479-6191

IWC 빅 파일럿 워치 패퍼주얼 칼렌더 타임 오버비 데저트 에디션 지름 46.5mm에 달하는 카타리 다이얼로 인피니트 오토와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며 샌드 컬러의 세라믹 소재 케이스가 고급스러운 감성을 더한다. 칼렌더 모듈은 아날로그 방식의 한 번 전환도록 구동되며 2개의 배럴은 세라믹 부품을 사용한 핑크본 워터proof 시스템으로 워터proof가 99미터에 사용될 수 있다. 5천3백70만원, 문의 1877-4315

론진 스피드 컴퍼 타임 월드 지름 42mm 리드형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케이스에 18K 옐로 골드 컬러의 고급스러운 감성을 부여한다. 세라믹 인서트를 장착한 양방향 회전 베젤로 내구성을 높였으며 양면 여러 층으로 반사 방지 코팅 처리한 동 향테의 시야가 더 글라스로 기록성을 높였다. 샌드 플래티넘 처리 한 무어턴 칼바네어 슈퍼루비노바 골드 리저브로 이루어진 오버비 데저트 에디션의 느낌을 준다. 5백50만원, 문의 02-3479-1940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코-엑시트 마스터 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42MM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크 에 디얼과 베젤은 블랙 처리해 럭셔리 스포츠 워치의 감성을 전한다. 1천5백 개 이상의 자기장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탁월한 항자성을 입증받은 크로노미터로 항공 워치로서 훌륭한 면모를 갖췄다. 신들하게 마무리한 핸즈와 인덱스에 도포하고 클래식한 감성을 부여한다. 9백만원, 문의 02-6905-3301 에디터 장영민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확실한 포인트가 될 블랙 장식 유니섹스 주얼리. (위부터 차례대로)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총 0.05캐럿의 다이아몬드와 온yx를 세팅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블랙로얄 네트리스** 로즈 골드에 매트 블랙 세라믹 장식의 조합이 유니크한 매력을 배가한다. 7백75만원. 문의 02-6105-2120 **부셴트 리트르 클라식 다이아몬드 라지 링** 오프 화이트·핑크 골드와 메종인의 PVD 소재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링. 도화적이고 심플한 느낌을 선사한다. 1천만원대. 문의 02-3467-8334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윤자경** 아시스턴트 **신정임**

## 블랙의 미학



## TIME FOR HERO

파넬라가 혹독한 훈련과 놀라운 업적으로 유명한 특수부대 네이비 SEAL(NAVY SEAL)과 합작해 특수 다이빙 및 스포츠용 수성이 특징인 워치 컬렉션을 선보인다. 44mm 브루니토 스틸 케이스를 적용한 루미노르 마린 네이비 SEAL PAM01412는 아이코닉한 파넬라 모델의 복각 버전으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완성해 특별함이 배가되었다. 특히 PVD 처리한 스틸 케이스가 빈틈없는 느낌을 자아내 유니크한 맛을 전한다. 다이얼에는 이광 처리한 이라바이 숫자와 아이유 마크를 적용하고, 3시 방향엔 날짜, 9시 방향엔 스몰 세컨즈가 위치한다. 오토매틱 기계식 무브먼트인 P.9010 칼라버로 구동하며,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1천백만원대. 문의 1670-1936



## 아름다운 대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활동 중인 프랑스 출신 회화 작가 아르노 부에이(Arno Boueilh)와 서울에서 세라믹 오브제 작업을 하는 이혜미의 협업작(테르멜레 Terre Mêlée)가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갤러리헤어(용산구 효창원로93길 50)에서 개최된다. 아르노 부에이는 나폴리를 비롯한 토스카나의 풍경에 영감을 받으며 아름다운 색채와 건축적인 조형 감각으로 새로운 회화 작품을 제시한다. 반면 이혜미는 흙을 베이스로 용도에 한정되지 않는 오브제와 테이블웨어를 제작하는 세라믹 아티스트다. 테르멜레(Terre Mêlée)는 서로 다른 지역의 토양이 섞여 있다는 뜻으로 다른 작업을 하는 두 아티스트의 협업을 의미한다. 나폴리와 서울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본인들의 작품 세계를 구현해온 이들은 우연한 계기로 서로의 작업에서 많은 감동을 찾아낸다. 회화와 세라믹 오브제라는 장르적 형태는 다르지만 대상을 바라보는 심세한 감각이나 작품에서 발현되는 영향력이 동일한 감각을 일깨운 것. 이혜미의 오브제는 아르노의 회화 인으로 들어가고 아르노의 회화 속 오브제는 이혜미의 물성을 입고 세계로 나온다. 이 작품을 속에서 그들이 존중하는 아름다운 색감, 치분히 쌓아 가는 것에서 생기는 온기, 성심으로 작업을 매진해 빛을 발하는 영향력까지. 이 두 작가의 마음의 물결에서 오는 단아한 태도와 그 속에서 느껴지는 색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시 관련 정보는 갤러리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galerie\_heal)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QUEEN'S JEWELS

쇼페의 아이코닉한 조세핀(Joséphine) 컬렉션에서 상징적인 페어컷 및 V 셰이프의 이그레트 모티브를 재해석한 주얼리를 선보인다. 공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세팅의 다이아몬드 라인으로 구성된 트루프루어 페어 모티브는 섬세하게 엮은 레이스를 연상시키며 여성스럽고 우아한 매력을 배가한다. 작품 뒷면의 오픈워크 디테일은 그래픽 모티프에서 착안했으며 다이아몬드 광채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18K 로즈 골드에 총 4.68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G VS+ 다이아몬드 2백33개를 세팅한 조세핀 이그레트(Joséphine Aigrette) 브레이슬릿과 18K 로즈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G VS+ 다이아몬드 총 3.34캐럿 95기를 세팅한 조세핀 이그레트 펜던트. 문의 02-3442-3359

## SECRET GARGEN

무슈 디올(Monsieur Dior)이 사랑한 정원에 대한 찬사로 선보이는 디올 하우스의 타임피스 디올 그랑발 밀리 라 바(Dior Grand Bal Milly La Nuit).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꿈의 휴식처였던 자연 속 밀리 라 포레의 울림 뒤쿠르데를 선택하는 듯한 기분을 워치메이킹으로 구현했다. 밀리키트 소재를 바탕으로 한 다이얼에는 로즈 골드 소재의 잎사귀와 가지가 서로 얽혀서 시적인 그랑자를 드러낸다.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자연이 살아 움직이고 빛의 아름 속에서 빛을 발산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총 1.95캐럿의 2백92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배열을 화려하게 장식해 강렬한 광채를 선사한다. 문의 02-3280-0104



## INSIGHT

편집부가 염산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HAIR CARE MASTER

와부 자극으로 지친 모발에 최적의 솔루션이 되어줄 프리미엄 헤어 케어. (위부터 차례대로) **올라플렉스 No.3 헤어 퍼펙터 비스-아미노** 성분으로 끊어진 모발을 이어주는 본드 빌딩 기술을 담아 탄력 있는 모발을 완성한다. 100ml 4만3천원. 문의 080-363-5454 **미리앙 케베도 서브라임 골드 브릴리언트 미스트** 섬세한 글기부를 함유해 윤기 나는 모발을 선사하며, 달달한 꽃 향을 시적으로 선들우드 향이 남아 헤어 퍼프로 사용할 수 있다. 150ml 12만5천원. 문의 1644-4490 **케라스타즈 방크로마 입술케어** 아미노산, 락틱산, 티타릭산 등 세 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 있어 손상도의 회복을 돕는다. 250ml 4만5천원. 문의 080-099-5000 **시슬리 컬러 뷰티피팅 헤어 케어 마스크** 향신료 성분을 함유한 레퍼넬라기 씨 추출물을 담아 외부 자극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주며, 심플한 퍼푸트 향을 더했다. 200ml 12만원. 문의 080-549-0216 포토그래퍼 **오현상** 인턴 에디터 **신정임**



## 순환의 향

이솝(Aesop)에서 프리그리언스 라인의 열번째 향수, 우라는 오드 퍼퓸을 출시한다. 현실이면서 상상이기도 한 공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아더토피아 컬렉션의 여섯 번째 향수이자 마지막 향수다. 조향사 바비 페용은 과거의 문명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는 단계를 향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한다. 흙 내음의 미네랄, 강렬한 스파이스, 유행과 우드 노트를 통해 별이 빛나는 밤에 흠뻑 젖어 있는 숲 속에서 서 있는 모노리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려 했으며 따뜻한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의 강렬한 열망을 향으로 표현했다. 늘 창의적인 방식으로 향수를 제작해 영감을 주는 이솝. 이번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50ml 21만원. 문의 1800-1987



## LOVELY BLOSSOM

루이비통에서 메종의 모노그램 플라워인 별 모양을 재해석해 제작한 루비 비통 블러썸 컬렉션을 출시한다. 오픈워크 디자인을 통해 대담하고도 내추럴한 분위기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며, 총 11점의 주얼리 피스도 선보인다. 레이어드 착용할 수 있는 심플한 느낌의 반지와 펜던트부터 과감한 오버사이즈 이어링까지, 대담한 볼륨과 크기, 텍스처로 루이비통 주얼리 디자인의 자질을 넘쳤다. 반지는 두 가지 크기로 만날 수 있다. 꽃잎 위에 다이아몬드 장식을 더한 미니 사이즈 반지는 고전적이고 단아한 분위기를 전하고, 보다 큰 크기로 출시한 오픈워크 디자인의 반지는 패셔너블한 다이아몬드로 완성해 더욱 화려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펜던트 또한 섬세한 라운드 컷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체인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핑크와 화이트 골드,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여 다양한 분위기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32-1854



## 또 다른 만남

두 브랜드의 감성이 만나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컬래보레이션 아이템. (위부터 차례대로) 시그니처 핑크 페르티 스티치가 포인트이며, 방수 가능한 고어텍스 소재의 트레일 그린 그래픽 스니커즈 1백20만원 **몽클레르 X 샬레 벨리리**, 문의 0030-8321-0794. 월드로 스포츠 헤드라지를 담은 실버 레시어에 하얀색의 현대적 디자인을 더한 프렌치 패셔니 포인트인 토리 49만원 **할라 X 하터 야빈**, 문의 1577-3472. 블랙 & 골드 컬러를 더한 슈즈 플랫폼에 컬래보레이션 지퍼프와 탈락시 퍼프를 미니 지퍼 피우치가 포인트인 메가 크러쉬 플로그 **MCM X 크로스**, 문의 1600-1976 포토그래퍼 **최민영** 인턴 에디터 **신정임**



## NEW MINI

2022년에 첫선을 보며 22라는 이름이 붙은 샤넬의 22 백은 쿨한 디자인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2023 S/S 컬렉션에서 앙증맞은 미니 사이즈로도 출시되었으며 이는 22 백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샤넬 22 백 미니는 2023 F/W 프리 컬렉션과 레디투웨어 컬렉션에서 새로운 컬러로 더욱 다채로워졌다. 핫 핑크부터 베이비 핑크, 옐로, 실버 등 샤넬 컬러 팔레트에서 따온 다양한 색상으로 만날 수 있으며 크로스 보드으로도 착용 가능하도록 기존과 마찬가지로 체인과 레디투웨어를 제공해 실용적이다. 샤넬 22 백 미니를 2023 F/W 버전으로 새롭게 만나보자.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1** 일본의 대표적인 글로벌 갤러리 브랜드인 화이트스톤 갤러리 서울(Whitestone Gallery Seoul)의 루프탑 공간. 신원동 작가의 백자 작품들이 놓여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 구마 겐고(Kengo Kuma)의 스튜디오에서 건물 전체 인테리어를 맡겼다. **2** 지난 9월 초 문을 연 화이트스톤 갤러리 서울의 개관전 제목은 《We Love Korea》. 동아시아 전후 아방가르드 작가 전시, 그리고 차세대 예술가가 함께하는 그룹전이다. 오른쪽 벽면의 큰 작품은 젊은 인기 작가 에이미 예츠 특유의 스타일을 풍기고 있다. 이 갤러리는 관공의 등 한국 작가들과도 활발한 협업을 하고 있다. **3** 미니멀한 디자인의 검은색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총 700㎡(약 2백12평) 규모로 3개의 주요 전시장을 품고 있다. **4** 스토클랜드 단지의 빅토리아 & 앨버트(V&A) 뮤지엄 외관. 구마 겐고 스스로 특히 마음에 든다는 그의 스튜디오 작품이다. photo credit: Ross Fraser McLean **5** 키아프 X 프리즈 아트 주간에서 자신의 스튜디오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한 화이트스톤 갤러리 서울의 오픈닝을 위해 서울을 찾은 구마 겐고. 역시 자신의 스튜디오가 디자인한 구마에어 포즈를 취했다. ※1, 3, 5 photo by고성연 ※2, 4 이미지제공: KKA(Kengo Kuma & Associates)

“요즘 어디를 가도 종종 구마 겐고장이다.” 지난 3월 말, 팬데믹 시기를 거쳐 오던데 해외 손님을 대거 맞이한 아트 바젤 홍콩에서 만난 한 일본 기자는 건축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했다. 물론 과정 숙인 일이지 만, 그만큼 이 건축가 브랜드 파워가 상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 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21세기 접어들어 세계 건축계에서 구마 겐고. 1954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지만 대중적 인지도까지 꽤한 기사는 이루어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있는 건축 스튜디오 KKA(Kengo Kuma & Associates)가 실계를 맡은 2020 도쿄 올림픽 국립 경기장 프로젝트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차려진 2차 공모전에서 채택된 터라 미디어의 주목도 더 많이 받았기에, 그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알려지게도 얼굴이 알려지는 사회적 지명으로 갑자기 확대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술품 수집은 특별히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아마도 살 수만 있다면 분신술에 큰돈을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구마 겐고. 그런 그가 당일까지도 키아프 X 프리즈 아트 주간에서 서울을 찾은 이유는 화이트스톤 갤러리 서울(Whitestone Gallery Seoul) 오픈닝을 위해서였다. 서울 남산 인근의 소멸되어 사라진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검은색 건물. 주변 나무들이 파손된 일부를 덮고 있는 유리채 비치고, 세로로 부착된 긴 막대들이 파손된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이 건물(화이트스톤 갤러리 서울)은 여러 번 지났을 법한 위치에 있는데, 딱히 기억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인성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구마 겐고 스튜디오가 갤러리 프로

젝트를 맡고 나서 외관을 검은색으로 바꾼 덕분일까? 아니면 1층 창으로 보이는 내부에 전시된 미술품이 눈길을 잡아끄는 덕분일까? 본연의 건축적 의도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어떻게 함으로써 건축적인 존재를 지우고 도시의 일상에서 하얏고 추상적인 아트 공간으로 전환되는 도입적인 체험을 만들어보자 했다’는 게 구마 겐고의 실망이다. ‘아트 공간은 우리를 일상의 세계에서 비정한 세계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관람자가 시간의 흐름을 잊고 밀로 표현하기 힘든 기차와 놀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요. 공간을 기념비 작품을 보면서 자기 존재라는 빛과 소리, 온도, 분위기를 체험하게 되 집어요. 저 스스로를 이스트라코 생각하고 작품과 작가기 마치 제 동료들처럼 실제로 갤러리 공간에 있다고 여기면서 살게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는 이미 화이트스톤 갤러리 베이직 지점과 타이베이 지점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일본 갤러리라는 국가 프레임으로 접근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위치와 프로젝트의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고 강조했다. 서울점의 경우, 층마다 다른 분위기를 펼쳐는 변화무쌍함이 특징이다. 예컨대 2층에는 천장이 높은 전시 공간이 전개되어 3층 라운지에서 바라볼 수 있고, 4층에는 옥상과 통하는 돌마당과 더불어 정적인 강상의 전시실이 자리한다. 여기까지는 기존 건물을 구조를 나름대로 역동적으로 살렸지만, 옥상층으로 올라선 뒤 구마 겐고다운 경이로 시기를 사로잡는다. 탁 트인 주변의 건물 숲을 배경으로 친화적 재료를 활용한 나무빛 바닥, 그리고 작은 정원의 녹음이 조한 정형성을 지닌 신원동 작가의 백자와 어우러지는 모습... 자연과 유연하고 느슨한 조화를 이루는, 감히 아끼려 들지 않고 자연에 기대는 ‘작은, 혹은 약간

건축을 줄곧 읊조려온 그의 스타일과 철학이 좀 더 느껴진다’고 할까. 물론 구마 겐고 건축을 이 갤러리 하나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예다. 이미 존재하는 건물을 갤러리 공간으로 바꾼 경우라는 특수성도 있기에 그저 한트만 볼 수 있는 정도(사실 여러 장소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많이 꾸렸던 이력 때문에 그의 작품은 일본 내에서도 꽤 알려져 있다). 건축은 예술처럼 관조하기보다 경험하는 대상이라고 볼 때,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은 팬데믹 기간 일본 교토에 개장한 에이스 호텔 교토를 꼽을 수 있다. 구마 겐고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에이스 호텔, 그리고 호텔과 연결된 복합 아카이브인 스토클랜드는 중심부에 자리하는데도 북적거림이 방해되지 않고 경쾌하고, 심지어 여유롭게 느껴지는 공간의 미학이 안팎으로 펼쳐진다. 크지 않은 객실 공간을 쾌적하게 바꾸려낸 호텔 내부도 그렇지만 외부 공간에서 해산한 날씨를 맞이할 때면 풀 내용과 유산인 공기를 느끼며 자연을 감상하고 사물과 호흡하는 기분이 든다. 이는 곧 건축에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여겨진다. 나무, 종이, 돌 같은 자연 친화적 재료로 투명한 경쾌함을 구현해냈다. 구마 겐고가 말했듯 자연과 유유호응하는 재료와 텍스처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이 공간을 경험하는 사용자에게 전해진 것이라. 이 같은 태도는 그가 뉴욕 유학 시절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건축적 태도로 체화해낸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 중 하나는 유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투명성을 구현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집도 그랬어요. 그저 후스마 스크린(무릎에 두꺼운 종이를 걸거나 일본식 칸막이)과 벽으로 단순히 구획해놓은 방식이 있는 집이었는데, 그것으로 가벼움과 투명함을 봤어왔거든요. 오래된 일본 가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구마 겐고의 건축은 우리나라에는 춘천의 NHN 데이터 센터와 국내의 건축가 5명이 참여한 제주의 리조트 ‘아트 빌라’ 등이 있다. 전자는 해인사 정자에서, 후자는 제주의 현무암에서 모티브를 얻었는데, 역시 정갈하면서도 힘 있다. 원만한 자태보다 더 많은 글을 쓰고, 알찬 내용의 책도 자주 펴내는 구마 겐고가 10년 전 집필한 한 저자의 추천 글에 인용된 교구는 ‘정곡을 건드리는 간결함과 힘이라는 표현을 썼다. 엄살을 부리고 싶지만 그는 결코 약한 건축가 아니라고 했는데, 동감하는 바다. 그의 건축을 경험할수록 전전히 뿔아져 나오는 정적인 아름다움 그윽한 세상을 바라보는 유연한 시가나, 섬세하고도 솔직하게 의견을 전하는 태도에서 단단한 힘이 느껴진다. 서울의 에너지를 사랑하는 그가 성수동에 일몰을 위한 거점을 돌 예정이라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글 고성연



## 자연과 예술에 조응하는 건축의 미학

단기간에 온갖 콘텐츠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도시 축제를 빙글게 하는 큰 행사가 전개되는 10번째 주간에 그 시기의 주인공 그룹에 속하는 누군가를 만나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건 자못 어렵지 않다. 초기에, 문화 예술계에 익숙해지고 싶다면 몸이 10기라도 모자랄 정도로 비뚤을 만한 키아프 X 프리즈 아트 주간도 바로 그러한 시가다. 그래도 평소라면 마주하기 힘든 인물을 아껴 너마라도 눈에 담아두거나 운이 좋으면 짧게 담소를 나눈 뒤 서로 길길이 뻗어 다음을 기약하며 쿨하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풍정이 어쩌면 이처럼 정신없는 행사의 묘미일지도 모르겠다. 굳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늘 출장이나 여행에 나서는 건축가나 스트리트 아티스트, 아니면 작업과는 별 상관없이 정말로 좋아하는 누군가가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잠시라도 제대로 된 만남을 기질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런 운이 닿은 대상이 올라가는데는 이미 도쿄에서의 일정이 가장 짧았을 건축가 구마 겐고(Kengo Kuma)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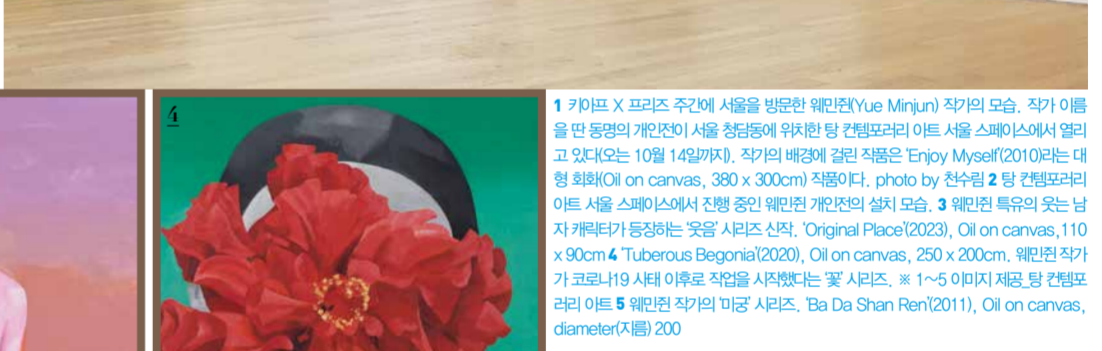
## 시대를 대변하는 ‘웃음의 역설’

눈을 꼭 짰은 채 웨민준이 힘겨 보이도록 입을 활짝 벌리면서 웃어짓는데,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중년의 남성. 중국 현대미술을 잘 모르더라도 불그스름하거나 노르스름한, 혹은 푸르스름한 색채를 띤 반(半)나인으로 ‘웃는 남자’의 강렬한 이미지를 어딘가에서 접해본 이들이 꽤 있을 듯하다.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차이나아방가르드’ 세대의 한 축을 이끈 현대미술가 웨민준(Yue Minjun, 1962~)을 상징하는 키워드다. 전시 기획자 윤재갑 디렉터가 실패하듯 ‘차이나아방가르드’는 비서구 미술이 미술 시장과 비엔날레 모두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첫 사례였다. 2007년 가을 작품 ‘차형’(1995)으로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5백90만 달러의 판매가를 기록하며 세계 무대에 두각을 나타낸 웨민준은 그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의 커버 스토리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의 ‘웃음 시리즈’는 처음에는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담아낸 자화상으로 출발했는데, 언뜻 ‘포복절도’로 차이는 수준으로 보이지만, 여가엔 우리 인간 사회의 애달프고 공허한 현실을 풍자적, 냉소적으로 바꾸려낸 ‘웃음의 역설’이 투영되어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선보인 ‘꽃 시리즈’에서 얼굴을 ‘사해하게’ 가린 꽃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되곤 한다. / 편역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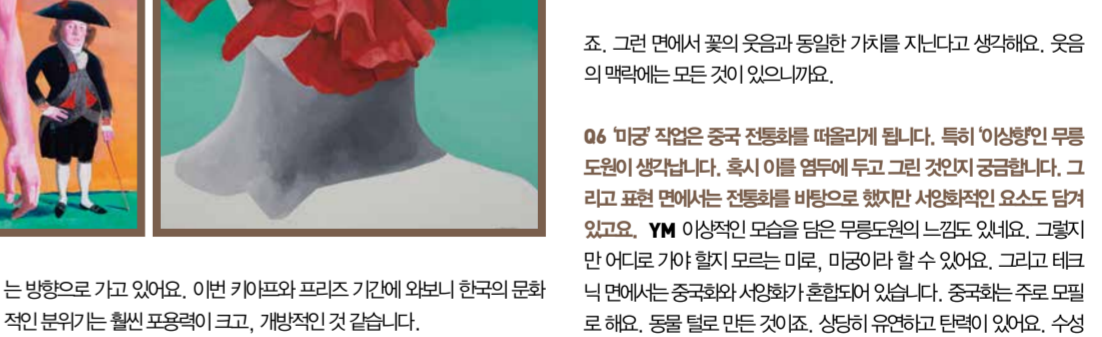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탕 캔젤포라리 아트 서울에서 ‘냉소적 사실주의로 유명한 웨민준(俞敏君, Yue Minjun)의 개인전(Yue Minjun)이 진행 중이다(2023. 9. 5~10. 14). 전사의 부제는 ‘냉소적 사실주의(cynical realism)에서 환상적 리얼리즘(Magic Realism)으로’.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전파도, 기쁘도 아닌 현실을 뒤집어 표현한다는 맥락에서 ‘anti가 아니라 반(反)리얼리즘을 뜻한다고 한다. 이는 은유일까? 일종의 도피일까? 이번 전시는 웨민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웃음 시리즈’를 비롯해 불안한 낙관주의와 기만적인 속성을 강조한 ‘꽃 시리즈 신작, ‘미궁’ 등 그의 30년 넘는 작업 세계를 관통하는 작품(20여 점)을 두루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작가의 30년 자기(자) 중국 현대미술계를 잘 아는 큐레이터로 이 전사를 기획한 윤재갑 디렉터(아트뮤지엄 디렉터)와 함께 웨민준 작가를 만나려는 대화 내용을 간추려보았다.



**01** ‘웃음’ 연작을 보면 조롱, 관조, 우울 등 다양한 의미를 읽힌다. 우리 시대에 이 웃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걸까, 자문하게 됩니다. 웃는 남자의 출발점이 궁금합니다. **Yue Minjun(俞敏君 YM)** 웃으면 뺨이 온다. 그 웃음에서 비롯됐어요. 보통 중국의 절 일엔 기쁜 행사 웃음 주는 부처가 있어요. 보통 미화에 부처라고 일컫어지는 미라불인데, 중국인들에게는 익숙한 부처예요(묘대화상(布袋和尚), 소련화상(笑面和尚)), 그리고 미륵불이라고 부른다. 이 부처의 웃음에서 따온 방식입니다. 이 웃음에는 생로병사기 다 담겨 있죠. 단지 이중성이 아닌 다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비관일 수도, 조롱일 수도,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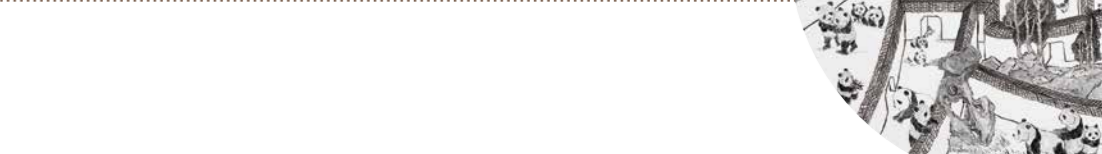
**02** 중국 사인 어우양장은 2016년 상하이에서 열린 키아프에 현대미술 재단 기획진의 도록에 ‘모든 영리한 슬픔은 이 웃음 속에 있다’라는 시구를 썼습니다. 작가님이 설명해주신 웃음은 이 말과도 상통하는 것 같아요. **YM** 맞아요. 그래서 이 웃음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웃는 남자는 제 작품의 주제가 됐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마도 세계 미술사에서 웃음을 가지고 이처럼 오랫동안 작업한 일은 드물 거예요.



**03** 1990년 원명원 예술가촌에서 활동하면서 회화, 조각, 판화 등으로 작업 영역을 넓혀갔어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 현대미술을 이끈 1세대 작가(망린, 웨민준, 장시요강, 왕팡)가 탄생했고요. 작가님도 그중 하나죠. 이 시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YM** 1990년 원명원(圓明園) 예술가촌으로 이주한 후 웃는 자화상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1990년대 초기, 베이징은 중국의 경제 개혁과 더불어 문화적, 정치적 중산자였죠. 이때 원명원과 동원에 이르러 빌라지가 생겼어요. 저는 원명원 예술가마을로 이주했죠. 예술가촌은 1995년 철거됐고 그 뒤 작가는 베이징의 송황(宋宮) 지구로 작업실을 옮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베이징에는 현대미술 전시를 열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1994~1995년 정도 위안저이 안정적인 작업실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그 후 해외에서 중국 현대 작가의 전사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방정인 풀링과 탈상전의 시가였다가 이제는 신장년 기조로 돌아섰어요. 전 세계가 완전히 역행하

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번 키아프와 프리즈 기간에 와보니 한국의 문화적인 분위기는 훨씬 포용력이 크고, 개방적인 것 같습니다. **04** ‘웃음’ 시리즈의 초기 작업에는 누가 봐도 작가님을 닮았다고 느낄 만한 자화상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군중과 군중으로 확장됩니다.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얼굴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 회화적 변화에는 개인적인 경험도 반영되어 있으리라 짐작되지만, 특별한 계기나 배경이 있었나요? **YM** 우리가 2010년, 2012년에 사스와 메르스를 먼저 겪었다는 사회적 배경도 큰 이유가 됐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완전히 바뀐다. 얼굴에 꽃이 활짝 피기도 하고, 얼굴을 꽃으로 덮기도 하죠. 누군가는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꽃이 웃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 베이징에서 생활하다가 겨울이 오면 중국 남서부 지방인 윈난 작업실을 옮깁니다. 2020년 중국 남서부 윈난성의 춘청에서 몇 달간 거주했어요. 팬데믹의 엄밀함을 꽃으로 견뎌냈죠. 윈난은 사시사철 꽃이 피는 곳이에요.

**05** ‘꽃’ 시리즈를 보면 사람 미술사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패러디하기도 합니다. 미술사에서 인정받고 권위 있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YM**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웃음 시리즈의 인물들을 제가 다양한 포즈를 시인으로 찍은 후 고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꽃의 사용성에 대해 생각해보면 신유물론 같은 경우 사물과 인간이 동등한 관계성을 맺고 있



데이비드 살레의 작품에는 마치 연극 무대의 한순간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화면 속 인물들은 분명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듯하지만, 그게 무엇일지 바로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리만마틴 서울 개인전을 통해 선보인 'Tree of Life' 연작에서 살레의 작은 연극에 주인공을 등장하는 그림 속 인물들은 누구일까. 이들의 캐스팅은 그가 '신이 주신 선물'이라 표현한 (뉴욕가) 집자의 진실적인 삽화가 피터 이르노(Peter Amo, 1904~1968)와의 운명적인 조우에서 비롯되었다. "평소 바우 하우스의 이상시 대중매체의 광고나 그래픽에 고관히 녹아들어 있던 1930~1960년대 잡지 속 광고, 그래픽 등 디자인에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당시 매해 발간되던, 그해 최고의 선정된 디자인을 보여주는 잡지가 있었요. 면도 크림이었는지 향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어느 제품 광고 페이지에서 아주 독창적으로 그려진 인물 캐릭터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광고를 넘어 예술 작품도 같은 중력감을 느꼈죠. 그것 이 이르노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르노의 화풍에 나타나는 세련된 인물들이 자신 입체에서 영감을 탄생했다.

한두 점을 제외한 모든 작품에서 화면의 중앙을 관통하는 '생명의 나무' 역시 사선을 끈다. 살레가 예전부터 구상하던 이번 연작에 본격적으로 몰두하게 된 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앙이 닥쳐왔을 즈음이었다. 전혀 없던 그림의 시대, 뉴욕주 이스트햄프턴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오로지 작업에 임한 농축된 시간의 결과물로 탄생한 작품이 'Tree of Life' 연작이다. 이 품 되면 나무라는 도상이자 상징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창조와 근원이자 수많은 종교적,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는 '생명의 나무'가 마침이 시기의 작업에 등장한 게 결코 우연으로만 보이는는 않는다.는 질 문에, 작가는 창조 그 이유를 답변을 내놓았다. "우리가 처한 안타깝고 슬픈, 독성 가득한 현실에서 나무가 자신 은유적인 이미지를 떠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의미를 재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무라는 보상은 단순히 당시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유의 전통이 은근하게 파질 수는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회화에 접근하는 방식은 특정한 순간이나 사건에 대한 반응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 살레는 (아트 포럼), (뉴욕 리뷰 오브 북스), (포먼 페인팅스) 등 미술 잡지에 게재된 수많은 에세이와 2016년 출간한 저서 (How to See: Looking, Talking and Thinking About Art)를 통해 예술을 감상하는 시기에 대한 그의 관점을 내비쳤다. 한결 같은 점은, 어떤 주제에 대한 의미를 단정 짓지 않는다는 것. 사실 그의 주제는 '보는 것(looking)' 자체에 있다.

보는 것에 대한 살레의 관심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추어 사진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암실에서 사진을 배웠으며, 이후 살레는 동네 아트 스쿨에서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자작품의 광고 레이아웃과 디자인 관련 일을 하면서 '자카르타가 눈에 띄면서 오랬동안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미지 만드는 법을 저절로 익혔으리라 생각된다(살레의 작품에 의도적으로 숨겨진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의 페인팅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살레의 예전 작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회면 구획' 또한 그의 작품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 Behind the Scenes '휴먼 코미디'의 무대

데이비드 살레(David Salle, 1952~)만큼 다양하게 해석되는 작가가 있을까. 그는 직접 관찰하거나 미술사적 레퍼런스에서 차용한 상반된 이미지를 화면에 구성하며 팝아트, 신표현주의, 초현실주의를 넘나드는 고유한 스타일의 페인팅을 선보여왔다. 이는 대중문화와 미디어에서 범람하는 이미지의 채용, 전복, 해체와 재구성을 탐구한 픽처스 제너레이션(Pictures Generation)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1980년대부터 지속해온 작업 경향으로 보인다. 1987년, 불과 서른넷의 나이로 미국의 휘트니 미술관에서 최연소 미드 커리어 아티스트로서 개인전을 개최하는 영예를 누리 지도 벌써 수십 년이 흘렀다. 지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진화해온 그의 작업은 최근 몇 년간 몰두한 'Tree of Life' 연작에서 가장없이 매력을 펼친다. 얼핏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미지가 자유롭게 조화를 이루는 그만의 독특한 조형언어는 유자한 채, 유머러스함마저 풍기는 만화풍 인물들이 웬지 모르게 정이 가는 작업이다. 이 시리즈의 최신작을 선보인 개인전 (World People)을 위해 리만마틴 서울을 찾은 작가와 만났다.

이를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의외적으로든 아니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동시에 다양한 양상을 스킨하고 있는 연관시켜 하나로 해석하는 우리 눈의 이미지 인식 과정을 따라서 말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레의 작품을 들여다보자. 화면 속 인물들의 생동감 있는 표정과 행동을 보고 있자니 미술 시야를 오가는 생동된 말풍선 속 대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특정한 스토리나 상황을 제시하는 대신 살레는 그의 작품의 담긴 내러티브가 우스움(funny)이라고 전했다. "내러티브는 단순한 스토리를 넘어 어떤 회화에도 존재하는 요소입니다. 추상화에도 존재하죠. 어떻게 그림이 만들어졌는지, 왜 이러한 형상을 하고 있는지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감정적인 느낌 또한 모두 내러티브입니다. 남자가 만났을 때 오해가 발생하고, 또 그걸 보는 과정에서 우스운 상황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TV 시트콤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허드부는 상단에 복잡하게 나타난 여러 행동과 대사는 상리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이 따라서 위아래 패널이 또 다른 의미나, 이에 정반대 의미를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 지난 9월 5일 개막해 리만마틴 서울에서 진행 중인 데이비드 살레 개인전 (David Salle: World People) 전시 모습. 오는 10월 28일까지. © David Salle/VAGA at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Courtesy the artist and Lehmann Maupin, New York, Hong Kong, Seoul, and London. Photo by OnArt Studio. 2 David Salle 'Tree of Life, Blue Beret'(2023), Oil, acrylic, and pencil on linen, 61 x 43.2 x 2.5cm (artwork) © David Salle/VAGA at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Courtesy the artist and Lehmann Maupin, New York, Hong Kong, Seoul, and London. 3 Tree of Life, Gender Roles(2023), Oil on linen, 182.9 x 248.9 x 3.8cm (artwork) © David Salle/VAGA at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Courtesy the artist and Lehmann Maupin, New York, Hong Kong, Seoul, and London. 4 David Salle in his studio, 2023 © David Salle/VAGA at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Courtesy the artist and Lehmann Maupin, New York, Hong Kong, Seoul, and London. Photo by Frenel Morris.

를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젠 하나의 페인팅이고, 어떤 여러 요소가 하나의 작품에서 서로 부딪히지만 조화롭게 공존하며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우리는 종종 예술 작품을 즐기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행위인 '보는 것'의 힘을 망각한다. 살레의 말처럼 작품의 의미를 배우는 것보다는,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기반으로 작품을 '흡수'할 때, 데이비드 살레의 페인팅은 회로처럼 이 담긴 인간의 삶을 펼쳐내는 무대가 되어줄 것이다.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생이 참 멋지지 아니한가, 인생 참 재미있지 아니한가,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답하는 그의 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임이 유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레의 휴먼 드라마를 엿볼 수 있는 (David Salle: World People) 전시는 한남동 리만마틴 갤러리에서 10월 28일까지 계속된다. [김정우\(특목 큐레이터\)](#)



## Brands & Artketing\_10 프라다 모드(Prada Mode)

# 도시의 문화 예술을 대하는 그들만의 방식

혹여 너무 낯발하는 건가 싶을 살짝 걱정될 정도로 '애정하는 표현 중 '우연한 충돌'이라는 어구가 있다. 유전적으로 이종교배가 우성인자를 낳듯 서로 다른 생각, 이질적인 문화의 우연한 만남과 섞임,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크고 작은 창의성의 불꽃. 혼종의 시대라지만 '따로국밥'의 탓에 빠지기 쉬운 오늘날, 매력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우연한 충돌'을 유도하기 위한 '판'을 깔아놓기도 할 정도다. 개인적으로 브랜드 프라다가 펼치는 문화 예술 행사의 미학을 우연히 경험했다. 2009년 서울 경희궁에서 4면체 철제 건축물을 회전시키며 패션, 영화, 아트 등의 콘텐츠를 독특한 방식으로 선보인 '프라다 트랜스포머(Prada Transformer)' (반)백수 시설에 어쩌다가 맞닥뜨린 이 구조물의 미학이 워낙 인상적이었던 터라 그 이후로도 '프라다 방식'의 문화 예술 지원과 마케팅 전략에 절로 관심의 촉수가 쫓긴 것 같다. 한동안 주로 해외에서만 접하다가 초가를 서울에서 다시 만난 프라다만의 작은 축제. 짧지만 강렬하게 복합 문화 공간의 진수를 보여준 프라다 모드 서울(Prada Mode Seoul)을 반가운 마음으로 찾았다.



자. 불광주비엔날레 현장에서 마주했던 이숙경 예술감독이 울기를, 정하는 지난 9월 5일 서울 종로에 자리한 문화 공간 코트(KOTE)에서 열린 프라다 모드 서울(Prada Mode Seoul) 행사장에 나타났다. 1964년 가구 공예품점으로 출발한 코트는 지난 2020년 상업장을 기념해 문화, 예술, 창작, 사색, 협업의 장을 표방하며 거듭난 이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공간. 곳곳에 행사로 고가 과하지 않게 곁들여지며 프라다 모드 행사장으로 살짝 변신했지만 세월과 추억이 새긴 특유의 반바지 감성은 방문객의 애착을 받아들이며 유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쩡 수 없는 현대미술 비엔날레의 무대감이 드로운 전시장은 사뭇 다른 경쾌한 분위기가 물씬 감도는 이 공간에서 만난 이숙경 감독에게 어쩌다 브랜드 행사에서 받게 됐다고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넸다. "프라다 예시 아트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요"라는 미소 짓듯 답이 돌아왔다(그는 이번 예 전시 기획자로 참여했다). 그렇다. 프라다는 문화 예술에 지대한 관심을 쏟은 브랜드다. 아트 마케팅이 대세인 요즘을 많은 브랜드들이 너도나도 미술 애호와 후원을 자처하지만 사실 소수의 브랜드만이 '원조' 격으로 이 세계를 주도해왔다. 미우치야 프라다와 그녀의 남편 피르차오 베르텔리(Patrizio Bertelli)가 개인적 관심에 그치지 않고 공간과 콘텐츠를 꾸릴 플랫폼을 만든 게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다. 1993년 자신들의 DNA와 닮은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프라다 밀라노아르테(Prada MilanoArte)'가 바로 그것이다. 2년 뒤 프라다 재단(Fondazione Prada)이 설립됐고 당대의 저명한 큐레이터 제르마노 체르니가 합류하면서 브랜드 생태계가 아라 미술계에 날리, 깊이 화질될 만한 경쟁한 현대미술 전시가 기획됐다. 2015년에는 말로노 남동쪽의 리고 이스트코에 '스타터킷' 렐 플랫폼이 이끄는 건축 스튜디오 OMA가 설계한 프라다 재단의 새 본관자리가 문을 열었는데, 당시 독보적인 건축, 공간, 소장품과 기획전으로 큰 화제 물결을 했으며 지금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프라다 모드는 현대미술에 옷맛이 집중하는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 재단 활동과는 엄연히 다른 브랜드 차원의 플랫폼이다. 초창반은 소수의 이들이 예술, 음악, 미시,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동시대 문화를 독특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소셜 클럽'을 정체성으로 내세웠는데, 살림들이 포토월에서 촬영을 하고, 프라다의 디너와 파티, 공연이 벌어진다. 그러나 당연한 애기일 수도 있었지만, 콘텐츠를 선정하고 다루는 방식 등 DNA 차원에서 프라다 재단과 비슷한 점이 느껴지기도 한다. 애초에 현대미술가 카르스텐 홀러(Carsten Holler)가 15년 전쯤 기획한 '문화의 장' 콘셉트를 모티브로 하기에 예술과 협업이 핵심적인 토대로 녹아들어 있다. 늘 전사가 있고, 융합적 콘

텐트 구성이 있고, 대담을 비롯해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프라다 모드'라는 이름의 첫 행사도 2018년 12월 글로벌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렸고, 이후로도 홍콩, 런던 등에서 아트 바젤, 프리즈 같은 미술 행사 기간에 맞춰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카피와 프리즈가 동시에 열리는 9월 초, 열기 낫는 아트 주간에 맞춰 처음으로 서울에 상륙했다. 이숙경 예술감독과 협업으로 프라다 모드 서울이 기획한 전시는 (대중과 평행, 각자의 영역에서 개성 있는 존재를 자(그리고 여러 세를 이루는)는 3명의 한국 영화감독과 협업해 영상과 설치 작업 등이 어우러진 전사를 진행했다. 이숙경 예술감독은 "무엇이 한국 문화의 한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매체인지 생각해"고 밝혔는데, 그 선택은 반기우연사도 전혀 의외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김지은, 연상호, 장·희 등 세 감독은 3명의 공간에 자(자의) 스토리와 감성을 투영한 전사를 펼쳐냈는데, 영화와는 또 다른 면모가 돋보이게도 했고, 영화만큼이나 세 감독의 결이 다르기도 했다. 김지은 감독은 '회피'한 옛 사람의 그림자라는 설치 작품을 내놓았는데, 주요 소재인 평성이 곳곳에 놓여 있고 그 위에 말린 고추, 꽃무늬 장난감이 울려져 있다. 그리고 공간을 느끼하게 구획하듯 드러운 천 위로 흑백 영상이 흐른다. 김 감독은 "어느새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된 것들에 아쉬움을 느끼다가 평성이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연상호 감독은 넷플릭스 시리즈로 나온 웹툰 (자옥)을 모티브로 삼아 동명의 전사를 선보이면서 주인공이 살던 고시원을 사들여 재해석했다. 고시원 료을 열고 복도 맨 끝에 다다르면 섹스하듯 감독의 예술적 감성을 녹여낸 듯한 설치 작품이 하이리프트 공간(방)이 자리했다. 반면 에·메이시를 발표해온 장·희 감독은 종이, 빛, 유령이라는 제목의 설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영상 작품을 다양한 크기의 스크린으로 보여주면서 드로잉과 조각 등을 활용한 공간을 완성했다. 영화라는 매체를 가능하게 하는 빛의 특성에 주목해 물결진 종이, 조각과 비물결진 빛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했고, 전시 말고도 세 감독이 추천한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는 작은 영화관도 꾸려졌을뿐더러 방에는 각종 퍼포먼스와 공연이 이어지는 등 개발 같은 일한 프로그램이 구비됐다.

1 카피 X 프리즈 아트 주간에 맞춰 지난 9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강렬하게 복합 문화 공간과 융합적인 콘텐츠 미학의 진수를 보여준 프라다 모드 서울(Prada Mode Seoul) 전시 풍경. 에·메이시 작품을 주로 해온 장·희 감독의 종이, 빛, 유령 설치 모습. 전세계 유수 도시에서 전개되어온 프라다 모드는 초창기만 참여할 수 있는 소셜 클럽 감성의 행사인데, 이번 행사에서는 약 2천 명이 방문했다. 2 이숙경 예술감독과의 협업으로 프라다 모드 서울이 기획한 전시는 (대중과 평행)으로 김지은, 연상호, 장·희 감독이 참여했다. 3 웹툰 (자옥)에 등장하는 고시원을 전시 콘텐츠로 재해석한 연상호의 공간 중 기성 섹스하듯 느낌을 빚어낸 방의 모습. 4 프라다 모드 서울에서는 3명이 감독이 직접 추천한 영화를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도 꾸렸다. 5 이벤트를 위한 에·메이시 감성하기 - 일본의 발견이라는 워크숍도 큰 호응 속에서 진행됐다. ※ 1, 4, 5 이미지 제1회 프라다 모드 서울 ※ 2, 3 photo by 조성현



# the Greatest Leon

강렬하고 인상적이며 가장 아이코닉한 동물이 된 까르띠에 팬더, 그 역사적인 시작과 거듭된 발전,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장정의 스토리를 돌아본다.

1 원저 공작부인을 위해 1948년 제작한 팬더 브로치, 2 1949년 판매용으로 제작한 사파이어 팬더 브로치로, 원저 공작부인이 구입해 소장했다. 3 1914년 제작한 팬더 열목우니모티브 손목시계, 4 옐로 골드, 오닉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까르띠에 팬더 링, 5, 7 옐로 골드 소재 레거, 차보라이트 기둥, 오닉스로 완성한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 6 팬더 헤드가 돋보이는 카프스 링크, 8 팬더드 까르띠에 워치스톨 모델, 왼쪽부터 옐로 골드에 실버 다이얼, 핑크 골드에 브라운톤트 다이얼을 사용한 실버 다이얼, 브라운톤트 컷 다이얼을 사용한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골드 플랫 및 보온 그라데이션 다이얼을 매한 바친, 9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화이트 골드에 오닉스 스포트로 장식한 후 에메랄드로 눈을 완성한 팬더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Vincent Wulvenck, Collection Cartier ©Cartier



Archives Cartier ©Cartier

## 팬더의 시작

까르띠에의 시그니처 컬렉션인 팬더 컬렉션은 아프리카 여행 중 먹이를 찾아 헤매는 팬더의 모습에 매료된 루이 까르띠에가 이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하면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팬더 모티브는 1914년 오닉스와 다이아몬드 스포트로 장식한 시계에 추상적인 형태로 등장했다. 3년 후인 1917년, 루이 까르띠에가 잔느 투상에게 선물한 소지품 케이스에 등장한 팬더는 추상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난 구체적인 형상으로 두 그루의 사이프러스나무 사이에 장식되었다. 이와 같이 까르띠에는 다양한 액세서리에 팬더 모티브를 적용한 제품을 선보여 왔으며, 매종의 기념비적 인물 잔느 투상에 의해 다양한 주얼리 작품이 탄생하면서 컬렉션을 더욱 공고히 했다. 1933년 튀드 라 페 스튜디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잔느 투상은 1948년 처음으로 입체적인 모습의 팬더를 구현하며 주얼리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팬더를 모티브로 한 주얼리 제작을 위해 잔느 투상은 파리 근교에 위치한 뱅센(Vincennes) 동물원을 자주 방문했던 디자이너 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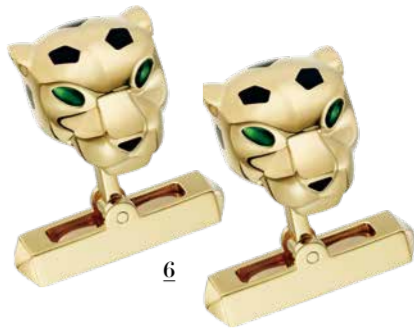
르 르마르상(Pierre Lemarchand)과 협업하는 등 마치 조각품과 같은 새로운 실루엣으로 1940년대를 대변하는 위풍당당한 팬더를 제작했다. 잔느 투상은 팬더를 통해 매종의 창의적 정신과 특성을 대변했고, 이는 20세기 가장 매혹적인 주얼리 작품들로 여겨지고 있다. 1948년 잔느 투상이 제작한 브로치는 사랑을 위해 왕위를 버린 것으로 유명한 원저 공작이 자신의 아내를 위한 선물로 주문한 것이다. 1백16캐럿 이상의 카보숑 컷 에메랄드 위에 위엄 있는 자세를 자랑하는 사실적인 모습의 팬더를 장식해 놀라움을 선사한다. 이 제품에서 까르띠에는 최초로 팬더 모티브를 3차원으로 발전시켰으며, 세계에서 가장 우아한 여성 중 한 명으로 손꼽히던 원저 공작 부인은 팬더 컬렉션을 크게 유행시켰다. 이듬해인 1949년 잔느 투상은 사파이어를 세팅한 팬더 브로치를 추가 제작했다. 이 새로운 모델 역시 원저 공작부인의 소유가 되었다. 팬더 브로치는 까르띠에 하우스 역사에 특별한 이정표로 남아 있다. 당시 언론들조차 이를 '주얼리계의 핵폭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다. 마치 조각품처럼 만든 3차원적 작품의 섬세함, 고양이와 동물의 자연스러움과 우아함은 놀라움을 자아냈다.



N. Welch, Collection Cartier ©Cartier



Iris Velghe © Cartier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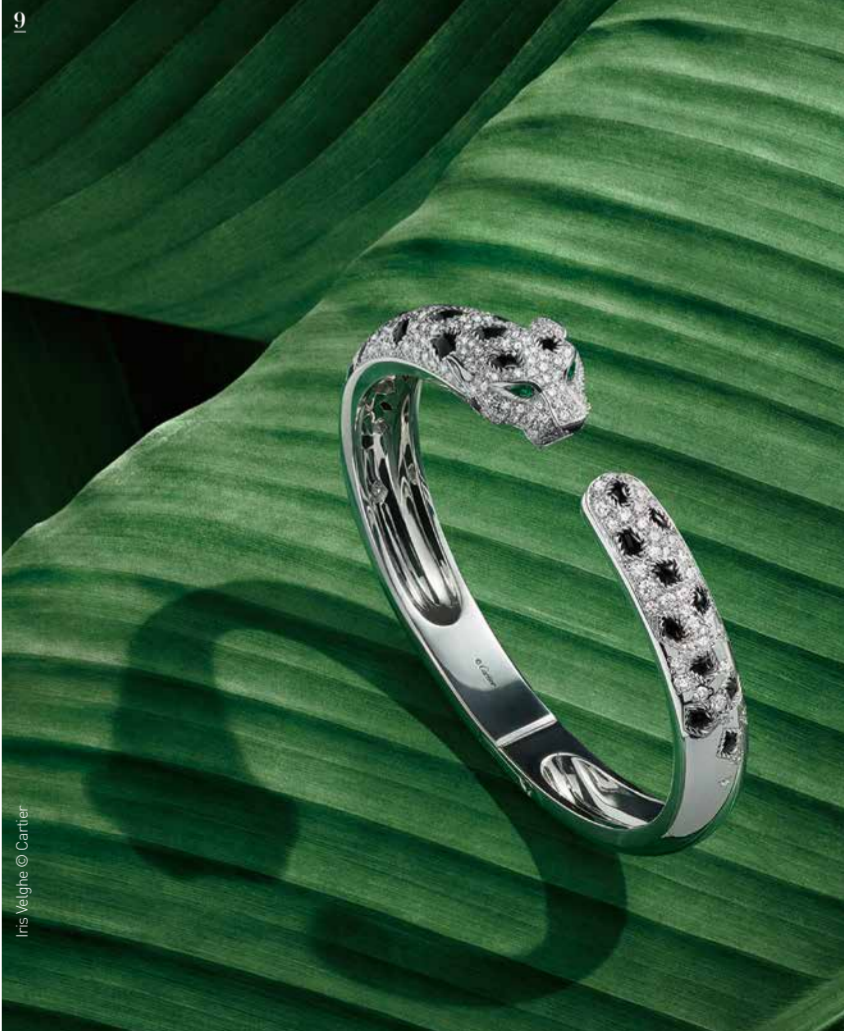
7



## 현대의 팬더드 까르띠에 컬렉션

까르띠에의 영원불변한 팬더는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그레 픽적으로, 또는 야생미 넘치는 사실적인 팬더의 모습으로 묘사하며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는 중. 여기에 매종의 주얼리 메이킹 노하우를 적용해 디자인과 착용법에 대한 경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까르띠에의 팬더드 까르띠에는 야생미 넘치는 팬더의 섬세하고도 강렬한 특징을 바탕으로 우아한 카리스마를 지니거나 사랑스럽거나 때로는 장난스럽기까지 한 팔색조 같은 매력으로 강렬한 긍정 에너지를 발산한다. 한편 작년 팬더드 까르띠에가 또 한번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작년에 새롭게 론칭한 뉴 팬더드 까르띠에는 강렬한 볼륨감이 특징이지만 놀랍도록 유연한 모습으로 놀라게 했다.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은 걸음으로 드러난 힌지 없이도 유연함을 자랑해 디자인적으로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까르띠에가 개발한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이 컬렉션에 마법과도 같은 완성도와 매력을 더하는 것. 까르띠에의 상징적 동물인 팬더를 매력적인 곡선 디자인으로 구현한 주얼리 피스가 착용자의 몸을 완벽하게 감싸며 착용자와 마치 한 몸이 된 듯한 착용감과 연출을 선사한다. 또 간결한 라인과 디자인으로 팬더를 모던하고 아름답게 재해석한다. 팔각형 블랙 레거 스포트 및 그레이 컬러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오닉스 스포트로 장식한 옐로 골드 밴글에서 이를 더욱 잘 관찰할 수 있다. 에메랄드 혹은 차보라이트로 눈을 표현한 조각 같은 2개의 팬더 머리에서 이어지는 긴 밴드는 유려한 곡선미를 자랑하며 완벽한 디자인을 이룬다.

Iris Velghe © Cartier



Iris Velghe © Cartier



옐로 골드 팬더에  
차보라이트 가넷,  
오닉스로 완성한 팬더드  
까르띠에 네크리스와 링.

Hugo Magelli © Cartier



화이트 골드 에메랄드와  
오닉스,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완성한 팬더드  
까르띠에 네크리스와 링.

Hugo Magelli © Cartier



옐로 골드, 래커, 차보라이트 가넷,  
오닉스로 완성한 팬더드 까르띠에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 옐로 골드,  
에메랄드, 오닉스,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을 더한 팬더드 까르띠에 링.

Julien Vallon © Cartier



Julien Vallon © Cartier

옐로 골드, 래커, 차보라이트 가넷,  
오닉스로 완성한 팬더드 까르띠에  
네크리스와 다이아몬드 세팅한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골드 플렉스 및  
브라운 컬러 그라데이션 다이얼을 매치한  
팬더드 까르띠에 워치 스톱 모뎀.



### 새로운 팬더드 까르띠에 캠페인

까르띠에는 앰배서더인 바네사 커비와 방탄소년단 뷁가 함께한 새로운 팬더드 까르띠에 캠페인을 공개했다. 바네사 커비와 뷁는 다양한 스타일의 팬더드 까르띠에 주얼리 및 위치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까르띠에의 상징인 팬더의 창의적 정신과 매혹적인 눈빛을 표현했다.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 뛰어난 카리스마 있는 연기력으로 임팩트를 선사하는 영국의 배우 바네사 커비는 이번 캠페인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길들일 수 없는 야생적인 팬더가 매혹적인 자세를 드러내는 듯하게 연출한 이번 캠페인의 팬더 그 자체를 보여준 것.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지닌 그녀가 착용한 팬더 주얼리와 그녀가 매우 닮아 몰입감 있게 다가온다. 그녀는 팬더 주얼리를 마치 원래 자신의 신체 일부인 듯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올해부터 까르띠에의 새로운 얼굴이 된 방탄소년단 뷁 역시 원래부터 까르띠에의 앰배서더였던 듯한 모습으로 등장해 놀라움을 자아낸다. 팬더를 닮은 강렬하면서도 묘한 눈빛부터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와 어울리는 까르띠에의 상징적인 색인 레드 컬러 의상을 입고 다양한 팬더 주얼리와 위치를 착용해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양이와 동물인 팬더처럼 시크하고 세련된 외모를 지닌 방탄소년단 뷁의 모습이 더욱 잘 부각되어 캠페인 비주얼에서 시선을 땔 수 없도록 한다. 그의 외모뿐 아니라 그의 아티스트적 역량과 거기에서 비롯된 카리스마까지, 까르띠에 팬더를 완벽히 표현해냈다.

### 새로운 라 팬더드 까르띠에 워치

까르띠에의 상징적인 팬더가 올해 새롭고도 매혹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팬더 스폿을 연상시키는 블랙 래커 다이얼을 입에 문 대담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야생적이지만 자유분방한 이 팬더는 핸드 피니싱 래커와 폴리싱 처리한 스폿, 세팅 등 매종의 하이 퀄리티 주얼리 메이킹 노하우를 적용해 탄생되었다. 마치 조각과도 같은 팬더 머리에서 위치의 강렬함이 느껴지며 코, 볼, 눈, 뾰족한 귀 등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디자인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와 같이 팬더를 해석한 건축적 접근은 2005년 선보인 주얼리의 특징을 계승한 것이다. 당시에는 기하학적인 컷아웃과 날카로운 모서리가 이러한 면들을 표현해주었다. 이 정교한 디자인은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와 메뉴팩처가 개발한 브레이슬릿에도 담겨 있다.



His Velghe © Cartier



1, 3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 및 오닉스로 완성한 팬더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과 링. 2 그래픽적으로 표현한 옐로 골드 팬더에 차보라이트를 눈으로 완성한 팬더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4 옐로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블랙 래커 처리한 팬더 헤드와 다이얼로 임팩트를 부여한 라 팬더드 까르띠에 워치. 5, 6 옐로 골드와 래커, 차보라이트 가넷, 오닉스로 완성한 팬더드 까르띠에 네크리스와 링. 7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케이스를 두 팬더가 물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표현한 팬더드 까르띠에 워치.

특히 전체 마디 처리를 한 브레이슬릿은 매우 유연하며 독창적인 시스템과 보이지 않는 힌지로 손목에 최대한 밀착되어 매끈하게 감긴다. 블랙 래커를 가미한 옐로 골드, 핑크 골드 버전 혹은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한 화이트 골드 버전으로 구성되며, 2개의 차보라이트 및 에메랄드 눈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영민**

바진 울 일파카 코튼 블렌드 트윈드 소재의 그레이 컬러 울오버 재킷 5백20만원, 바진 울 드릴 소재의 그레이 컬러 바뮤다 쇼츠 2백40만원, 브라운 크림플 카프 스킨 소재의 부츠 3백만원 모두 **다음엔**, 화이트 컬러의 하트 버튼 셔츠 가격 미정 **패디모**.

# The Longing

더욱 깊어가는 그 남자의 가을. 2023 F/W 남성복 뉴욕.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울 소재의 그레이 컬러 더블브레스트 재킷 5백30만원, 울 소재의 그레이 컬러 와이드 팬츠 3백70만원, 레더 소재의 러버 솔 울 가격 미정 모두 **구찌**.

플리스 울 소재의 브라운 컬러 로커  
패턴 베스트 3백만원대, 코튼 소재의  
브라운 컬러 코트 7백만원대,  
데님 소재의 다크 브라운 컬러 팬츠  
가격 미정 모두 리벨.



라넨 플렌드 소재의 핸드 태일러드 벨트  
재킷 가격 미정, 실크 해링본 소재의 핸드  
태일러드 베스트 1백30만원대, 트릴  
소재의 에스턴 셔츠 가격 미정, 코튼 &  
라넨 소재의 태일러드 쇼츠 가격 미정,  
실크 소재의 스웨어 패턴 타이 가격 미정  
모두 리벨 로렌 퍼플 리벨.



스웨이드 소재의 브라운 컬러 보머 재킷  
7백15만원, 메리노 울 소재의 라이트 핑크  
컬러 터틀넥 1백22만원, 레더 소재의 브라운  
컬러 팬츠 가격 미정, 스웨이드 소재의  
브라운 컬러 부츠 가격 미정 모두 토즈.



니트 & 레더 소재의 아무아리움  
컬러 카디건, 니트 & 레더 소재의  
아무아리움 컬러 터틀넥,  
카프 스킨 소재의 엔트라이트 컬러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블랙 컬러의 사이드 버튼 디테일 코트, 화이트 컬러의 히든 버튼 셔츠, 블랙 컬러의 테일러드 팬츠 모두 가격 미정 **파라다모**.

올 시즌의 그레이 컬러 니트 코트, 올 시즌의 라이트 그레이 컬러 셔츠, 올 시즌의 라이트 그레이 컬러 타이, 레드 컬러의 버건디 컬러 오버 더 니 부츠 모두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타**.

헤이 미준호  
메이킹업 조해민  
모델 Joji Iwase  
스타일리스트 차환석

구찌 02-3452-1521  
파라다모 02-3430-7854  
다울 뎀 02-3280-0104  
구찌 02-3452-1521  
펜디 02-514-0652  
랄프 로렌 퍼플 라일 02-3438-6235  
에르메스 02-542-6622  
토즈 02-3438-6003  
보타가 베네타 02-3438-7882







에서 사용하는 강하면서도 가벼운 소재 인 감마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또 매트 피니시 아쿠아 테라 소재는 알루미늄 초침, 씨마스터 로고, 그리고 쿼터 아워 인덱스, 스트랩 스티칭에 사용한 컬러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컬러는 레드, 그린, 블루 중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오메가 최초의 티타늄 무브먼트, 칼리버 8928 티타늄은 코-액시얼 이스케이프먼트가 장착된 수동 와인딩 칼리버다. 그다음은 클래식한 무드를 좋아하는 이에게 추천하고 싶은 워치,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골프를 소개한다. 필드 안팎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특징으로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고급 요트의 목재 텍에서 영감을 받은 티크 패턴의 그린 선레이 다이얼을 매치했다. 로듐 도금 핸즈와 슈퍼루미노바 코팅 인덱스, 6시 방향의 날짜창이 매력적인 다이얼의 컬러와 고급스러운 조화를 이룬다. 오메가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00으로 구동하는 이 시계는 스위스 계측학연방학회(METAS)가 정한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 기준을 충족한다. 문의 02-6905-3301 에디터 윤지영

1 2023 오메가 유러피언 마스터즈 경기 모습. 2 오메가 글로벌 앰배서더 로리 맥길로이. 3 감마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울트라 라이트. 4 2023 오메가 유러피언 마스터즈 이벤트에 참석한 한파오 오메가 CEO 남도 애슬리안. 5 직경 41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케이스를 장착한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골프. 6 산악지대에 위치한 크랑-쉬르-시에르 골프 클럽.



# Dream Field

유럽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골프 대회이자 매년 같은 코스에서 개최해 더욱 특별한 오메가 마스터스와 총 4일간 열렸던 올해의 현장 하이라이트.



**2 필드 위 믿음직한 조력자, 오메가**  
오메가와 골프는 많은 가치를 공유한다. 먼저 필드 위의 선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비거리와 각도를 선보이는 퍼포먼스에는 내공으로 쌓아 올린 정확성이 뒷받침된다. 시계 또한 마찬가지. 수많은 부품이 모여 케이스 안에서 정밀하게 결합되고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 마치 골프의 메카니즘과 같다. 오메가가 그동안 아주 작은 오차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것처럼, 성공한 선수 역시 자신만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에 접근한다. 또 최고급 소재를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위치메이킹 선구자로서 최전선을 유지하는 것처럼 베스트 골퍼 역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노력과 헌신을 요구한다. 골프와 시계의 공통점은 스타일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멋진 클럽과 골프 아이템, 그리고 클래식한 룩은 필드 위에서 선수들의 스윙을 더욱 빛나게 한다. 오메가 역시 매년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독보적인 브랜드의 힘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런 교집합이 모여 골퍼는 전 세계 골퍼를 후원하는 데 전념했다. 수년 동안 이런 노력과 헌신적인 파트너십 덕분에 최고의 선수들은 물론 골프계의 굵직한 이벤트와 단단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었다. “오메가는 제가 좋아하는 시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경기를 열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오메가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로리 맥길로이의 말처럼 말이다. 오메가 마스터스는 유럽에서 개최하는 권위 있는 골프 대회 중 하나다. 1923년 창설 당시 스위스 오픈으로 불렸던

이 대회는 1939년부터 크랑-몬타나의 산악 지역에서 개최되며 매년 같은 코스에서 열리는, 유럽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골프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그간 세르히오 가르시아, 세베 발레스테로스, 닉 팔도 등 유명 선수들이 이 고산 지대에서 우승을 거두며 베스트 플레이어가 되었다. 오메가는 2001년부터 합류해 타이틀 스폰서로 활동했다. 올해는 22번째 대회가 열리는 해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크랑-쉬르-시에르 골프 클럽(Crans-sur-Sierre Golf Club)에서 진행되었으며, 언제나 그렇듯 전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선수들이 함께했다. 우승은 스웨덴의 루드비그 아버그가 차지했다. 이벤트 엔 브랜드 앰배서더 현빈과 미즈하라 키코가 참석했다. 특히 현빈은 스타일과 정확성에 대한 오메가의 기준은 업계 최고 수준이며, 오메가를 대표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혀 오메가 시계의 헤리티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3 베스트 골퍼를 위한 워치**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한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울트라 라이트는 항공 산업



# Harmonious Journey

한국 공예 후원 사업에 헌신하는 재단법인 예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넬과 '예율 X 사넬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장인과 젊은 공예인을 선정하고 그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사넬의 기업 철학인 장인 정신에서 비롯된 남다른 기술력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조성과 유서 깊은 장인 정신을 기리고 기술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재단법인 예율의 협력으로 빛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또 하나의 여정.



재단법인 예율은 우리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전통 공예의 가치를 올바르게 돌아보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2002년 설립되어 한국 문화유산의 보호, 발전과 확산을 목표로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전시, 세미나,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전통 장인 후원, 공예 마을 조성, 신진 작가 발굴 등 공예 후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예율 X 사넬 프로젝트'는 '예-과거와 현재를 잇고, 율-현재와 미래를 잇는' 재단법인 예율의 전통 공예 후원 사업의 핵심 사업이다. 장인과 수상 작가 선정부터 기획, 개발, 제작,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의 현대화를 통해 한국 공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1년 단위로 매해 진행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잇기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한 '예율이 뽑은 올해의 장인' 프로젝트는 전통에 머물러 있다가는 장인들의 오래된 기술과 정신이 담긴 아름다운 공예품을 현대인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물건으로 만들기 위한 공예 장인 후원 사업이다. 2011년 용기장 이현배, 2013년 소목장 故 조석진, 2014년 유기장 김수영, 2015년 화혜장 안해표, 2016년 우산장 윤규상, 2017년 두석장 허대춘·안이환, 2018년 주물장 김종훈, 2019년 다회·망수장 임금희, 2020년 갓일



1, 2, 7 올해의 장인 화각장 한기덕 작가와 젊은 공예인 김동준 작가의 합작품. 3 올해의 장인 화각장 한기덕 작가. 4-6 화각장 한기덕의 전시 작품. 8 2023 예율 X 사넬 프로젝트 전시 모습. 9 올해의 젊은 공예인, 김동준 도자공예가. 10-12 2023 올해의 젊은 공예인 도자공예가 김동준의 작품들.

정춘모, 2021년 원초장 허성자, 2022년 금박장 박수영 장인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현재와 미래를 잇는 것에 초점을 둔 '예율이 뽑은 젊은 공예가 프로젝트'는 한국 공예의 요소(정신, 소재, 기술, 이야기 등)를 작가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해 현대에 맞는 공예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부터 기획되었다. 2014년 가구 디자이너 이광호, 2015년 섬유공예가 조하나, 2016년 금속공예가 김현주, 2017년 목공예가 권원덕, 2018년 유리공예가 양유원, 2019년 금속공예가 김상훈, 2020년 도자공예가 김덕호, 2021년 목공예가 임정주, 2022년 옷칠공예가 유남권과 작업한 바 있다.

올해의 장인에는 화각장 한기덕(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9호 화각장 전수교육조교)을, 올해의 젊은 공예인에는 도자공예가 김동준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의 장인 화각장 한기덕은 얇게 썬 쇠뿔 너머로 화사한 빛깔을 그려낸다. 화각(華角)공예는 쇠뿔을 얇게 갈아 각지(角紙)를 만들고, 그 위에 도안을 그리고 채색해 가구 또는 소품을 장식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통 공예 기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장인은 공예와

디자인을 아우르는 디자이너 양태오와 협업을 진행, 소재 본연의 색상과 질감의 아름다움에 주목한 작품을 선보인다. 스톱, 조명과 같은 생활 기구와 옷칠 마감에 더해 사용성을 높인 화각 도시락 등 생활할 수 있는 화각을 일상에서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의 젊은 공예인인 도자공예가 김동준은 '조선백자'의 시각적, 감성적 미학을 이어가고 있다. 작가는 관요 백자의 산실인 경기 광주 남동면에서 수학하며 익힌 도자 기술을 활용해 그의 이상과 한국의 미를 백자에 담아낸다. 이번 프로젝트 작품들은 작가가 오랜 시간 연마한 도자 기술의 결실로, 지난 시간 작가가 고민해온 아름다움이 백자로 표현되어 있다.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예율의 김영명 이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넬과 함께하는 '예율 X 사넬 프로젝트'를 통해 장인들의 노동의 결실을 선보이게 되어 감격스럽다"며 "소중한 우리의 아름다움이 모두의 평범한 일상에서 빛나는 그날까지 한국 공예를 꾸준히 아끼고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에터터 상영



청정한 색감과 쿨톤 저지 소재의 조합이 소년의 느낌을 선사하는 디올 티아스 피스 사인 엠브로이더리의 파플 저지 티셔츠, 블루 코트 소재의 올버 디올 오블리크 & 디올 티아스 피스 사인 프린트의 블루 코트 블루중 모두 가격 미정 디올 맨, 문의 02-3280-0104

부드러운 착용감과 보온성이 특징인 캐시미어 소재의 레스 플로 셔츠, 깃에 포인트를 주어 고급스러운 무드를 완성한 숭이치가족 소재의 리프터 캐주얼 재킷 모두 가격 미정 로로 피아나, 문의 02-6200-7799



# about Autumn

한결 포근해진 소재, 가을의 서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색깔, 영한 감성을 부여하는 감각적인 프린팅까지, F/W 맨 아우터 컬렉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감각적인 컬러 조합과 스트라이프 디자인이 캐주얼한 감성을 전하는 옐로 알타칼라 스트라이프 코트 뉴 럭비 베이스 플로 1백33만원, 부넛한 깃이 캐주얼한 무드를 배가하는 GG 코트 캔버스 자퍼 재킷 3백50만원 모두 구찌, 문의 02-3452-1521

부드러운 착용감이 돋보이는 실크 및 캐시미어 소재의 티들넥 2백48만원, 차별한 브라운 컬러가 특징인 올 소재의 셔츠 1백52만원, 포근한 무드를 부여하며 레더 포인트로 완성한 올 및 레더 소재 코트 2천7백29만원 모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윤자경



# Sneakers on

어디서든 편안한 것은 물론 쿨하고 스타일리시한 감성까지 챙길 수 있는 남성 스니커즈,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미국 대학가의 스키이트부터 바이브를 담은 아이코닉한 스니커즈로 화이트 레더에 메트 그린 레더 스타일로 포인트를 준 볼 스타 스니커즈 71만8천원 **골든구스**, 문의 02-519-2937, 어느 룩에나 연출하기 좋은 조던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블랙 디올 오블리크 그래픽이 포인트 컷프 스니커에 블랙 라버를 매치한 B27 로 탑 스니커즈 가격 미정 **디올 맨**, 문의 02-3280-0104, 캐주얼한 감성을 부여하는 캔버스 소재에 V 로고 패턴으로 개성을 부여한 트윙 이코노그래프 스니커즈 1백21천원 **발렌티노 기라바니**, 문의 02-2015-4665, 발목을 감싼 레이스업 스타일로 편안한 캔버스 스타일에 스타일만사함을 한 스포츠 대용을 올 화이트 컷프 스니커즈의 미드 로 레이스업 **셀몬스** 앨런 스니커즈 가격 미정 **셀몬스 올드**, 문의 1577-8841, 블랙과 화이트 레더를 교차하고 GG 로고로 브랜딩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포인트를 준 GG 엠보스 스니커즈 1백24만원 **구찌**, 문의 02-3452-1521, 무난한 디자인과 화이트 컬러에 숭이치가족, 고관한 아웃솔로 포인트를 준 토즈 51K 스니커즈 92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프린팅이 아닌 화이트 모노그램을 엠보싱으로 표현해 다채롭고 독특한 감성을 부여하는 화이트 모노그램 엠보싱 캔버스 1백10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브랜드의 시그처 디자인으로 화이트 페인팅 디테일이 고유의 독특한 감성을 선사하는 페인트 레플리카 스니커즈 가격 미정 **메종 마르자켈라**, 문의 02-772-3234 에디터 **성정민**



이재민 촬영

이재민 촬영

# for legendary Skin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피부와 성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만든 스킨케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시세이도가 탄생시킨 차원이 다른 럭셔리 하이엔드 스킨케어,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컬렉션으로 피부 그 이상의 정점을 찍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엔메이 얼티메이트 리뉴잉 크림 50ml 60만원대,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엔메이 얼티메이트 루미넌스 세럼 30ml 54만원대,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엔메이 얼티메이트 브릴리언트 아이 크림 15ml 41만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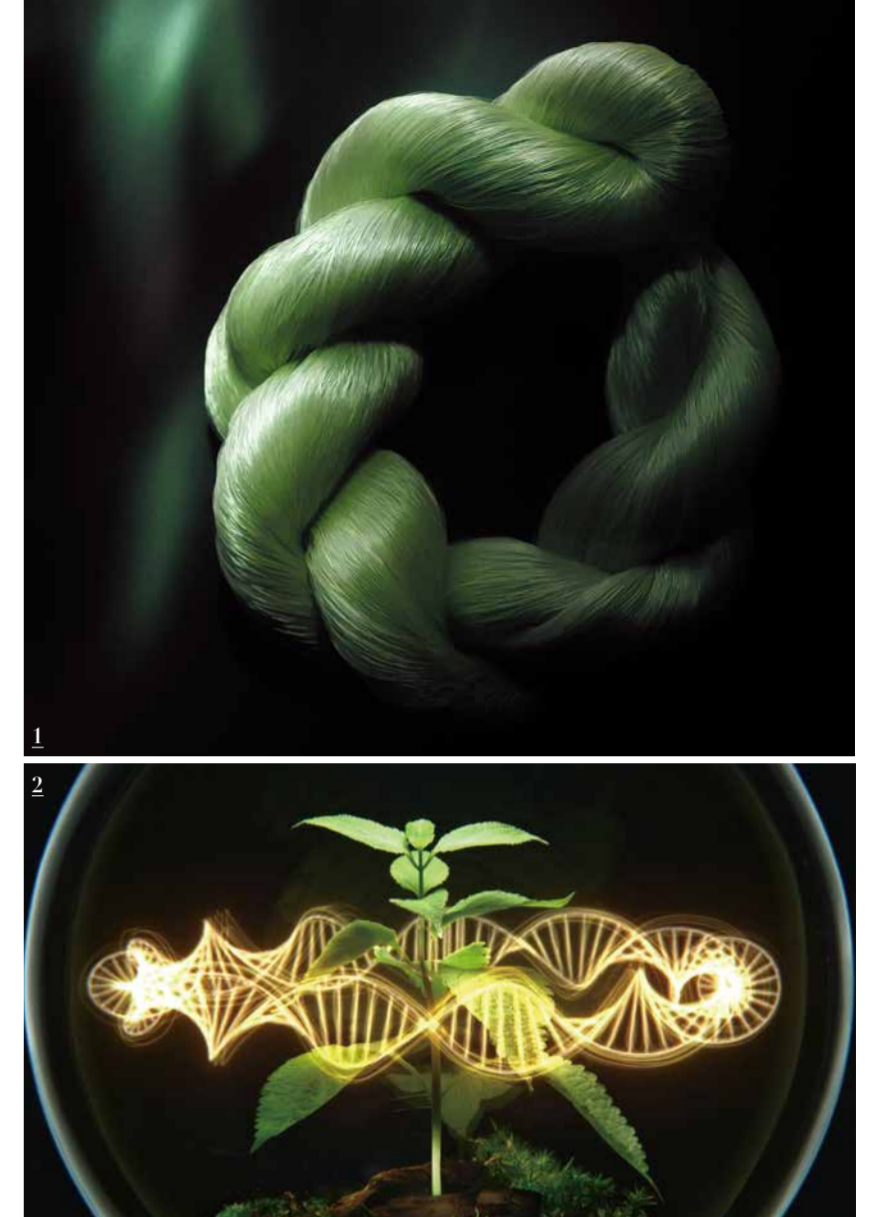
## 150년 시세이도 피부 과학과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완성되는 절정의 피부

럭셔리 스킨케어는 원료와 기술력부터 차원이 다르다. 브랜드의 오랜 히스토리와 탄탄한 연구 결과, 성분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스킨케어 브랜드 시세이도. 그중에서도 피부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고가의 라인을 탄생시킨 것은 진정한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이기에 가능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스킨케어의 성분이다. 1년에 한번만 채집하는 전설의 식물 '연명초 \*엔메이(Enmei) 허브. 오래전 수도승들이 고행 길에 지친 여행자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시세이도는 이 성분이 약해진 피부 힘을 강화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여기에 효능을 더하기 위해 매우 적은 양만 생산되는, 영롱한 빛을 품은 그린 트레저드 실크™를 추가했다. 즉 수확하기 힘든 아주 고귀한 성분만 어렵게 채집해 사용한 것. 여기에 무려 1백 50년간 쌓아온 시세이도만의 기술력이 만났다.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는 무시할 수 없는 법. 이로써 피부에 확실한 효과를 전해주는 엔메이 콤플렉스™가 탄생했다. 이 \*\*레전더리 엔메이 콤플렉스™는 본연의 생명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타고난 피부의 힘을 깨우면서 피부 깊숙한 곳에서 광채를 끌어내는 것. 그뿐 아니라 피부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도와주어 피부 스스로가 건강하고 생기 있게 바뀌도록 돕는다. 여기에 더블 진 테크놀로지™를 더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아 에너지를 부여하는 특별한 기술력으로 레전더리 엔메이 콤플렉스™의 작용을 끌어올린다. 마지막으로 동백꽃 씨앗 추출물을 함유한 서브림 액티브 성분을 통해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에너지 인퓨징 테크놀로지로 피부 활력과 광채를 부여하는 공식에 대한 모든 것을 완성했다. 모든 이들이 단순히 현재 눈에 보이는 피부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부 상태가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꾸준히 케어하고 피부 자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세이도는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놀라운 성분과 기술력으로 다양한 피부 문제를 케어하는 시세이도만의 통제비티 사이언스™ 기술을 완성했다. 이로써 다양한 피부 문제를 전방위로 케어하며 이상적인 피부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모든 것을 집목한 것이 시세이도의 노하우를 집약한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컬렉션이라 할 수 있다.

## 피부, 그 이상의 정점을 찍다,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컬렉션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는 수분, 탄력, 광채, 결, 안색까지 다섯 가지 필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기능마다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되려 피부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고귀한 성분에 오랜 시간 이어온 연구를 통해 개발한 뛰어난 기술력을 더해 만든 스마트한 제품이 필요할 때다. 많은 브랜드 제품 중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시세이도의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컬렉션이다. 시세이도는 1백50년간 아름다운 피부를 완성하는 수분, 탄력, 광채, 결, 안색 등 다섯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멀티 안티에이징 스킨케어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해왔다. 오랜 시간의 연구로 쌓은 전문성은 그 어떤 제품도 따라올 수 없는 확실한 기능과 효과를 보장한다. 스킨케어 명가인 시세이도의 헤리티지로 탄생한 럭셔리 안티에이징 라인인 것. 빛나는 피부를 위한 이 프리미엄 스킨케어 컬렉션은 동안 피부에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럼과 크림, 그리고 가장 먼저 노화가 찾아오는 눈가 케어를 위한 아이 크림까지. 이 모든 제품에는 컬렉션을 대표할 핵심 성분인 레전더리 엔메이 콤플렉스™를 가득 담았다.

먼저 안티에이징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눈여겨보게 되는 제품이 세럼인 만큼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엔메이 얼티메이트 루미넌스 세럼은 엔메이 허브의 효능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엔메이 얼티메이트 리뉴잉 크림은 탁월한 주름 개선 효과는 물론 수분과 탄력, 광채, 결, 안색 개선 효과를 발휘한다. 세럼과 함께 사용하면 고귀한 성분이 지닌 효과를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노화에 가장 취약한 눈가를 위한 아이 크림까지 함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럭셔리 스킨케어가 완성된다. 울가를 새롭게 출시한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엔메이 얼티메이트 브릴리언스 아이 크림은 눈가 기미와 \*\*\*다크서클, 주름, 탄력 저하, 건조함 등 눈가에 관련된 주요 고민을 케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눈가 피부의 긴장을 완화해주는 전용 팔사를 포함해 함께 사용하면 좀 더 확실한 눈가 케어 효과를 선사한다. 세럼과 크림을 바른 후 아이 크림을 바르며 팔사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하루하루 맑게 차오르는 듯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1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컬렉션의 핵심 성분 그린 트레저드 실크™. 2 엔메이 허브에 그린 트레저드 실크™를 더해 완성하는 레전더리 엔메이 콤플렉스™ 테크놀로지. 3 부드럽게 발리며 빠르게 눈가를 케어해줄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엔메이 얼티메이트 브릴리언스 아이 크림.

## 디테일로 완성한 럭셔리 스킨케어

럭셔리 스킨케어일수록 끝까지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또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낸다.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컬렉션이 그러하다. 고귀한 성분을 넘어 오랜 연구로 빛을 확실한 기술력뿐 아니라 사용할 때의 느낌까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 그중 제품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텍스처와 향은 럭셔리한 감성을 부여하는 요소 중 하나다. 특히 텍스처는 제품의 효능을 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시세이도는 이러한 텍스처를 고안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으며, 완성도 높은 텍스처로 제품의 효능까지 높였다.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엔메이 얼티메이트 루미넌스 세럼과 크림에서는 풍부한 영양 성분과 기술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고귀한 성분을 담은 고농축 제형이지만 피부에 발랐을 때는 끈적이지 않고 가볍게 스며든다. 크림은 텍스처가 풍부한 부드러운 질감으로 피부를 안정적으로 감싸고 고보습 효과를 선사하며 눈부신 광채를 완성한다. 특히 이번 신제품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엔메이 얼티메이트 브릴리언스 아이 크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양 성분이 가득한 아이 크림은 얇은 눈가에 사용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은 실키하고 부드럽게 발리며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눈가를 쫄쫄하게 메워주어 오랜 시간 피부에 충분한 영양감을 선사한다. 따라서 매일 사용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며, 오히려 눈가가 진정되고 눈가 처짐이나 주름이 개선되는 듯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엄선한 원료인 대나무, 동백꽃, 등나무 꽃만 블렌딩해 탄생시킨 풍부한 향으로 감각적인 리추얼을 경험하게 해준다. 풍부한 향과 부드러운 텍스처, 충분한 수분감과 영양감을 온전하게 반영한 텍스처는 퓨처 솔루션 LX 레전더리 컬렉션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다. 문의 080-564-7700 애틀러 상영원

\*엔메이(Enmei) 허브: 방아불 잎/줄기 추출물  
\*\*레전더리 엔메이 콤플렉스™: 퓨처 솔루션 LX 라인의 대표 성분인 전설의 식물 엔메이 허브(연명초)와 영롱한 빛을 품은 그린 트레저드 실크™가 만나 건강한 피부로 탄생시켜주는 시세이도만의 콤플렉스.  
\*\*\*다크서클: 2022. 4. 4~6. 28, 40~65세 여성 34명 대상, IEC Korea

# his obsession

담백하면서도 섬세하며, 강인하고 짙은 숨결이 느껴지는 가을 남자들의 향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오른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몰튼 브라운 와이드 & 라빈디 오드 파뽀** 숨을 산책하다 영감받아 탄생한 향으로 활기차고 신성한 아쟁의 민트 향과 따뜻한 오리스 뿌리 향이 자유로운 무드를 선사한다. 시그니처 노트인 나트메그는 향 전체를 크리미하게 만들어주고, 깊이 있는 샌들우드와 조화를 이룬다. 100ml 22만원 문의 070-6038-6075 **메종 프랑시스 카칭 아쿠아 미디어 코롱 포르테** 싱그럽고 감미로운 아로마틱 시트러스 향의 파뽀. 스파클링한 이탈리아산 베르가모트, 가벼운 노트의 헤디온, 부드러운 스위트 맨지, 싱그러운 비베나 코드, 관능적인 우디 머스크 향의 조합이 여성 해방가 가득한 숲속을 떠올리게 한다. 70ml 28만2천원, 문의 02-3479-1382 **티미 컨티넘 12:00 GMT 오드 파뽀** 클래식한 오라엔탈 노트를 색다르게 표현해 세련미가 가득한 향. 그린 민디린, 민센스, 얀디 앰버 향으로 사치에 토바코 리프와 시스투스 앰슬루트 의 관능적인 무드로 이어진다. 베이스 노트에는 오우드와 스웨이드, 스모크드 머스크 향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다. 100ml 16만7천원, 문의 080-930-8989 **블라지 퍼퓸 맨 레인 EDP** 변화와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는 빛깔의 힘을 모티브로 한 파뽀. 보물 또한 비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은빛 광택이 돋보인다. 프레시 우드 마스크를 중심으로 청량한 여운을 남기는 향이 특징이다. 100ml 19만원, 문의 02-6105-2120 **벨라리코스 미스터 톨슨 EDP** 매력적인 오리스와 제라늄, 그리고 블랙페퍼의 향연 속에서 부드러운 참깨 노트가 풍성하게 아우라지며, 깊고 달콤한 바닐라 노트로 마무리해 고급스럽고 묵직한 무드를 느낄 수 있다. 75ml 39만5천원, 문의 080-363-5454 **에디션 드 파뽀 프레데리 말 헤븐 썬 화이트** 임브레드와 앙근 씨앗, 아이리시가 세련되게 조화를 이루는 첫 향이 후기를 인도하며 베터베르, 복숭아, 자두의 생동감 넘치고 부드러운 무드로 이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100ml 44만8천원, 문의 02-3479-6258 **에디션 유자정**

이마에 선명

# Perfect Men

관리하는 남자가 더 매력적인 시대.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차례대로) **클라린스 에프터 셰이빙 수딩 토너** 면도로 자극받은 피부를 즉각 진정시키는 에프터 셰이빙 토너로 피스레인, 고투 콜라 추출물을 함유해 당근진 피부를 식혀주고 싹뚱하게 마무리한다. 100ml 4만9천원, 문의 080-542-9052 **디올 스킨케어 페이스 클렌저** 젤 마스크 풍부한 자연 유래 성분과 산화질 추출물을 함유한 포뮬러로 풍성한 거품과 함께 깔끔하면서도 강자극인 클렌징을 돕고 상쾌한 청량감을 제공한다. 우디 & 아로마틱 노트를 결합한 향이 기분 좋은 사용감을 선사한다. 120ml 6만2천원, 문의 080-342-9600 **이솝 모로칸 네롤리 샴푸** 세련되고 자극이 적은 면도를 도와주는 세럼으로 면도 전 젖은 손이나 면도 용기에 한두 번 펴밀러 거품을 내서 바른다. 일몰에버 추출물과 백단, 네롤리 플라센스를 함유해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수분을 충전한다. 100ml 7만원, 문의 1800-1937 **시세이도 맨 얼티뮴 파워 인퓨징 콘센트레이트** 과다한 피지 분비와 넓은 모공 등이 특징인 남성 피부를 위한 세럼. 트라몰 조피키 테트라놀로지™가 탄탄한 피부로 완성해 주며 워터-젤 타입 포뮬러가 가벼우면서도 풍부한 수분감을 선사한다. 75ml 17만5천원, 문의 080-564-7700 **랩 시리즈 데일리 레스큐 워터 로션** 빠르게 강장한 피부로 가려주는 하이드라 2G 테트라놀로지™(Hydra2G Technology™)를 함유한 토너로 가벼운 사용감이 특징이며, 독특한 포뮬러가 사용 즉시 피부에 수분 에너지를 공급하고 탄을 매끄럽게 정돈한다. 200ml 5만8천원, 문의 02-6971-3224 **스쿠아드 퍼펙트 맨 아이 리치 크림**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으로 눈가 피부에 수분과 영양만 남기고 탄탄한 피부로 가꿔준다. 강인한 생강의 엘라그리놀 추출물을 함유해 얇은 눈가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15ml 22천원, 문의 1644-4490 **르 리브르 페이스 로션**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가꾸는 데 도움을 주는 가벼운 제형의 로션. 베르가모트와 라벤더 향이 시원한 비아올렛과 톱카 빈을 더한 섬세하고 클래식한 향이 남성 스킨케어 라우트를 돕는다. 60ml 6만5천원, 문의 1544-1345 **에디션 상향진**

이마에 선명

# editor's Pick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지금, 화장대를 재정비할 때. 엄선한 이달의 뷰티템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kim sa yun, oh hyeun sa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라 메르시에 리퀴드 하이아미티 #삼베인핑크** 베이스 메이크업 시 은은한 피부 광채 표현에 신경 쓰는 편. 이 제품은 장미빛 핑크가 들어 있어 T존과 턱, 볼 부위에 발라주니 인제인은 물론 화사함까지 가득한 피부 톤으로 만들어 주었다. 스킨과 샴푸가 피우다가 들어 있어 미유리감이 보송하다. 12ml 6만3천 원대. 문의 1644-4490\_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크리드 스프링 플라워** 봄 하면 느껴지는 낙관주의, 핀타지, 그리고 로맨스에서 영감을 받아 살구, 재스민, 복숭아, 화이트 플라워 부케 등 신성한 향을 모았다. 앵버와 마스크를 베이스 노트로 해 목직함이 느껴지며, 휴대용 용량에서 경감받은 보드도 감성적이다. 이틀과 달리 가을에도 색칠 어울린다. 75ml 41만원. 문의 02-3449-5312\_by 에디터 장미윤

**샤넬 31 르 루즈 루주**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알아지는 일출 라인에 고민이 있는데, 이 제품은 마라쿠차 오일을 함유해 인술을 탄력 있게 보기에 안 좋다. 또 동양인에게 잘 어울리는 레드 컬러가 돋보이며 미세한 피그먼트 오일, 셀룰로스 파우더를 함유해 오랫동안 광채를 유지한다. 컬러를 쉽고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는 알뜰한 소세의 리필 시스템도 장점. 3.3g 19만8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_by 에디터 윤지경

**재팬시 뷰티 스킨 파워드 캄팩트 크림 SPF 30 PA++** 핑크 포뮬러비타민 C 핑크 페퍼 추출물이 들어 있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광채있는 피부를 만들어 준다. 피부에 생기를 더해준다. 크리미한 미를 제형으로 부드럽게 밀착되며,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더해 장시간 햇빛 노출에도 안심 12g 7만7천원대. 문의 080-801-9500\_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맥스미오 레인스 세럼-파워 피우데이션** 글로시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기대감 제로였다. 하지만 비록고 난 뒤 기쁘고 있던 모든 피우데이션과 쿠션을 정리하고 이 제품에 정착하기로 했다. 비록고 난 뒤 톤과 잡티를 완벽하게 커버하면서도 이질감이 없이 내추얼한 핑크 스किन으로 탈바꿈시킨다. 원래 피부가 좋은 것처럼 맑고 자연스러운 광을 연출하고 싶다면 바로 갯할 것. 30ml 7만2천원대. 문의 02-3440-2782\_by 에디터 신정민

**다미크 오르페옹 클렌징 핸드 앤 바디 젤** 워터 자-케어 된 듯이 되는 법. 핸드 잔여량도 적정한 보디 워시를 했다 이 제품을 발견했다. 너무 건조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향으로 샤워 내내 기분 좋게 하면서 샤워 후 미끈거림 없이 깨끗하고 개운하게 씻어준다. 200ml 7만1천원. 문의 02-3479-6049\_by 에디터 신정민

**나스 피우데이트 하이 인텐시티 립 세럼 #아메리칸루민** 12 컬러 및칭 나스에서 이심치게 준비한 신제품. 크림이 녹듯 미끈거려 발리는 부드러운, 은은한 컬러감. 그리고 오랜 지속력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눈가나 처근에 스킨 타워에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인제인 핑크 컬러인 이 제품은 대담하게 제2이다. 2.4g 4만3천원대.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장미윤

**상하이 바이오 리프팅 아이 크림** 핑스 피부가 얇은 편이라 수렴은 아이 크림을 사용해 왔지만, 그중 제일 큰 효과를 보 크림. 눈가 부기를 완화해주는 팜프티드와 비타이민 성분들이 들어 있어 눈가를 끈끈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 준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바르면 눈가 피부가 눈에 띄게 맑고 탄력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15ml 3만9천원. 문의 070-4370-7511\_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플레드르 보네 파린 세럼 수프림 N** 건조함으로 SOS가 필요할 때 요긴하다. 속 땅 감이 심한 요즘 아침저녁으로 사용했다. 즉각적으로 밀리는 느낌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확실하게 피부가 탄탄해지고 밝아졌다. 은은한 향도 마음에 췌 울거릴 인생템으로 자리할 예정이다. 40ml 37만1천원대.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장미윤

**장세올 아티스트 아이 팔레트 #레드브라운** 젊은 브라운 눈동자 컬러와 어울리는 이 제품은 하나의 팔레트에 눈매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대립비 존 4개 컬러와 포인트 아이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 존 2개 컬러를 담았다. 베이스로 대립비 존의 로즈톤과 블라썸 컬러를 발라주고 포인트로 아티스트 존의 멜스, 대립비 존을 더 해주니 그윽하면서 은은한 가을 무드 아이 메이크업 완성 14.5g 4만2천원. 문의 808-816-7671\_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로비어 인텐스 하이드라이션 모이스처라이징 토너** 날씨가 건조해져 기증 제품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만난 제품. 피부에 출출하게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살기 편한 텍스처가 피부에 잘 흡수되며 끈적임 없이 미유리되어 만족스러웠다. 유가 농도 하이스카스 열매 추출물과 팔라이트 성분이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한다. 200ml 4만9천원. 문의 1644-4490\_by 에디터 윤지경

**룩사림 이모로벨 다비인 유스 크림** 룩사림의 이모로벨 라인을 즐겨 사용한다.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연에서 온 이모로벨 성분과 향, 그리고 피부가 라켓되는 효과까지 모두 갖춘 만능 라인이다. 크림 역시 살기 편하지 않았다. 아침저녁으로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는 좋은 적절한 유수분감이 특히 마음에 든다. 50ml 16만원. 문의 02-2054-0500\_by 에디터 신정민

**EGF유로지 프로세셔널 R3**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집중 케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아이템이다. 특히 생분말 T-EGF가 피부 탄력을 높여, 탄력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무엇보다 피부 재질이 활발한 저녁에 사용했다. 피부가 탄탄하게 리프팅된 것을 느낄 수 있다. 5ml X 5 25만원대. 문의 1644-1048\_by 에디터 윤지경



# SHOWROOM



**오메가 씨마스터 다이버 300M 파피 2024 스페셜 에디션** 올림픽 공식 타임카피인 워터메이킹 브랜드 오메가에서 2024 파리 올림픽을 기념해 스페셜 에디션으로 씨마스터 다이버 300M을 출시한다. 스테인리스 스틸과 옐로 골드 합금인 18K 문신™ 골드로 제작한 이번 신제품은 중앙 세칸즈 핸드에 파리 2024 엠블럼을 담았으며, 황금빛을 띠는 베젤은 올림픽 금메달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이번 신제품은 파리의 오메가 부티크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2-6905-3301

**샤넬 화인 주얼리 까멜리아 & 꼬페드 라인 신제품 출시** 샤넬 화인 주얼리의 2가지 대표 주얼리 라인, 까멜리아와 꼬페드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선보인다. 까멜리아 신제품



**이드백 앤솔로지 컬렉션** 이드백 히파스 타임 멀티워스 키 브랜드 이드백에서 앤솔로지 컬렉션의 첫 번째 제품, 이드백 히파스 타임을 출시한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이번 신제품은 달콤함이 가득한 스모키한 맛이 특징이다. 3주마다 한정판 워스키 시리즈를 소개하는 이번 컬렉션은 캐스속성 방식과 그에 따른 스토리를 담아 새로운 워스키를 선보인다. 이드백 히파스 타임은 주류 대역로와 및 주요 워스키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188-5100

**시몬스 프리미엄 구스 토퍼 & 구스 듀얼**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블랙 포레스트 라인인 신제품 2종을 선보인다. 새롭게 출시한 제품 중 구스 토퍼는 솜털 90%와 깃털 10%로 채운 구스 듀얼 시몬스 토퍼는 보온성은 물론 부드러운 촉감을 선사한다. 아울러 길감이 탁월한 항균 작용을 발휘하는 셀룰로오스를 기반으로 탄생한 스마트셀 섬유 소재의 구스 듀얼은 각종 진드기와 세균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문의 1899-8182



인링과 네크리스, 이어링은 각각 18K 화이트옐로 핑크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까멜리아 꽃잎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아울러 별 모양 장식이 특징인 꼬페드 이어링은 18K 화이트 골드에 16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문의 080-805-9628, chanel.com

**우블로 2023 FIFA 여자 월드컵™ 공식 워치 빅뱅 e 쟌 3** 스위스 워치메이킹 브랜드 우블로가 2023 FIFA 여자 월드컵™ 공식 타임카피로 참여해 경기 워블로 워치로 진행한 후 8월 20일에 가나인 경기 여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 총 1백7명은 우블로의 대회 공식 스마트 워치인 빅뱅 e 쟌 3(Big Bang e Gen 3)을 손목에 차고 경기에 임했다. 워치에는 옐로 키트 및 경기 종료 시각 모니터링 기능이 경기 진행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았다. 문의 02-3438-6031



**프라다 로에베** 프라다 로에베가 도넛 모양 체인을 더한 스카츠 백을 새롭게 선보인다. 스물과 미디어 사이즈로 출시한 이번 신제품은 부드러운 나파 램 스킨을 사용해 둥근 라인을 따라 자연스레 주름이 잡히는 실루엣이 특징이다. 길이 조절 가능한 골드 메탈 소재의 체인



로에베 스카츠 백 로에베가 도넛 모양 체인을 더한 스카츠 백을 새롭게 선보인다. 스물과 미디어 사이즈로 출시한 이번 신제품은 부드러운 나파 램 스킨을 사용해 둥근 라인을 따라 자연스레 주름이 잡히는 실루엣이 특징이다. 길이 조절 가능한 골드 메탈 소재의 체인

**프라다 이르게 백** 프라다가 애중의 모던한 디자인 미학을 담아 새로운 프라다 이르게 백을 선보인다. 독특한 초승달 모양이 특징인 이르게 백은 블랙, 코냑, 화이트, 총 3가지 컬러로 선보이며 길이 조절 가능한

**랑콤 어드밴스드 제-피피 세럼** 글로벌 뷰티 브랜드 랑콤에서 대중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No.1 세럼, 어드밴스드 제-피피 세럼을 재탄생시킨다. 비타민 C와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 있어 피부 속부터 영양과 수분을 채워 화사하면서 탄력 있는 동안 피부를 선사한다. 아울러 올해 랑콤 코리아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용량의 제-피피 세럼을 레네르치 H.P.N 크림 50ml로 구성된 리미티드 에디션 세트를 출시했다. 문의 080-022-3332



들을 위해 솔다백과 코스 보디 및 토트백으로 연출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으로 출시한 이르게 백은 전 세계 프라다 부티크와 공식 홈페이지(prada.com)에서 판매한다. 문의 02-3442-1830

**구찌 2023 F/W 시즌 캠페인 공개**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가 F/W 시즌을 맞아 새로운 캠페인을 공개했다. 구찌의 시그니처인 그린 컬러를 배경으로 전개한 이번 캠페인은 허우스의 아이이브를 더한 2023 F/W 컬렉션의 레디투웨어와 액세서리로 연출했다. 아울러 20년 전 처음 선보인 홀스빗 체인 백을 역시 버전으로 새롭게 해석해 파디드콘트라스트 가죽, 사이링 등 다채로운 소재를 선보인다. 문의 02-3452-1521

**호간 H630 바스켓 스카츠** 호간에서 농구화를 모티브로 레트로 감성을 더해 새롭게 탄생시킨 H630 바스켓 스카츠를 공개했다. 스카츠 양쪽 옆면에 브렌드 시그니처 로고를 담았으며, 초경량 EVA 코어 밑창과 메모리폼 인솔을 더해 장시간 착용 시에도 손쉬운 편안한 착용감을 경험할 수 있다. 오렌지, 버건디, 그린 등 다채로운 컬러로 선보이는 호간 H630 바스켓 스카츠는 호간 공식 온라인 스토어(hogan.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79-1593

**시슬리 수프리아미엣 나이트 더 수프림 안티에이징** 리최초의 나이트 안티에이징 스쿠어 수프리아미엣을 선보인 시슬리가 피부 재생 기능을 더욱 강화해줄 새로운 수프리아미엣을 출시했다. 스쿠어와 크림으로 구성된 이번 수프리아미엣 라인인은 강력한 활성 성분을 담은 뉴 수프리아미엣 콤플렉스가 들어 있어 피부 속 산소도를 높임으로써 효과적인 피부 재생은 물론 수분 및 콜라겐 공급으로 탄력 있는 피부를 선사한다. 문의 080-549-0216

**랑콤 어드밴스드 제-피피 세럼** 글로벌 뷰티 브랜드 랑콤에서 대중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No.1 세럼, 어드밴스드 제-피피 세럼을 재탄생시킨다. 비타민 C와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 있어 피부 속부터 영양과 수분을 채워 화사하면서 탄력 있는 동안 피부를 선사한다. 아울러 올해 랑콤 코리아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용량의 제-피피 세럼을 레네르치 H.P.N 크림 50ml로 구성된 리미티드 에디션 세트를 출시했다. 문의 080-022-3332



FASHION BEAUTY

# 장미윤(40대), 김민서(20대), 신정민(30대), 윤지경(20대) 시복(40대)

LIFESTYLE



**LOUIS VUITTON**